

# 태안군 복지수준 평가 연구

2017. 11.





# 제 출 문

태안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태안군 복지수준 평가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1.

충남연구원 원장 강현수



# 목 차

<b>제1장 연구 개요</b> .....	<b>1</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 수행 방법 .....	5
3. 연구의 체계 .....	8
4. 연구의 경과 .....	9
<b>제2장 이론적 배경</b> .....	<b>11</b>
1. 비교연구의 유용성과 한계 .....	13
2. 지역 복지정책 평가의 이론적 검토 .....	14
<b>제3장 태안군 복지 정책 현황</b> .....	<b>17</b>
1. 태안군 일반 현황 .....	19
2. 태안군 사회복지 현황 .....	21
1) 태안군 복지 대상자 등 인구 현황자료 .....	21
2) 태안군 사회복지 예산 .....	23
3) 태안군 사회복지 전문인력 현황 .....	25
4) 태안군 주요 사회복지 정책 현황 .....	28
5) 태안군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현황 .....	31
6) 태안군 사회복지의 특성 .....	33
<b>제4장 비교분석</b> .....	<b>35</b>
1. 사회복지 예산 비교 .....	37
2.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비교 .....	38
3. 태안군과 서천군의 사회복지 수준 비교 .....	47
1) 비교의 가능성 .....	47
2) 태안군과 서천군의 복지수준 비교 .....	47
4. 태안군과 금산군의 사회복지 수준 비교 .....	53
1) 비교의 가능성 .....	53
2) 태안군과 금산군의 복지수준 비교 .....	53

<b>제5장 질적연구 분석</b> .....	<b>57</b>
1. 질적연구의 필요성 .....	59
2. 질적조사 및 분석 방법 .....	60
3. 질적분석결과 .....	63
4. 질적연구분석결과 소결 .....	82
<b>제6장 우수복지정책지역 사례연구</b> .....	<b>87</b>
1. 우수복지정책 사례연구와 태안군 .....	89
2. 우수복지정책 사례 .....	90
3. 향후 태안군 지역복지정책방향 .....	106

## 표목차

[표 1] 시군에 정보를 공개를 요청한 사회복지시설과 대상인구(2016년 기준) .....	6
[표 2] 면접조사 내용 .....	7
[표 3] 면접 대상자 개요 .....	9
[표 4] 태안군 총인구 현황(2017.1.1. 기준) .....	21
[표 5] 생애주기별 인구현황 .....	22
[표 6] 복지대상자 유형별 인구현황 .....	22
[표 7] 복지대상자 읍면별 현황(2017.1.1. 기준) .....	22
[표 8] 2017년 태안군 영역별 사회복지예산 현황 .....	23
[표 9] 2017년 태안군 팀별 사회복지예산 현황 .....	24
[표 10] 태안군 사회복지팀 인력 현황 .....	26
[표 11] 태안군 읍면 사회복지 인력 현황(2017년 8월 기준) .....	27
[표 12] 민선6기 공약사항 목록 .....	29
[표 13] 2016년 하반기 주요사업 .....	30
[표 14] 사회복지 인프라와 대상인구(기준연도 : 2016년) .....	32
[표 15] 충남도 15개 시군의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복지예산 비교(%) .....	38
[표 16] 시군별 사회복지인프라 · 대상인구 · 공급수준 .....	39
[표 17]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경로당 포함) .....	42
[표 18]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경로당 미포함) .....	43
[표 19] 아동복지수준 공급수준 .....	43
[표 20] 장애인복지시설 공급수준 .....	44
[표 21] 보육시설 공급수준 .....	45
[표 22] 저소득 복지 공급수준 .....	45
[표 23] 사회복지관 공급수준 .....	46
[표 24] 태안군과 서천군의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복지예산 비교(%) .....	47
[표 25]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경로당 포함) .....	48
[표 26]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경로당 미포함) .....	48
[표 27] 아동복지시설 공급수준 .....	48
[표 28] 장애인복지시설 공급수준 .....	48
[표 29] 보육시설 공급수준 .....	49
[표 30] 태안군과 금산군의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복지예산 비교(%) (2016년 기준) .....	53
[표 31]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경로당 포함) .....	54
[표 32]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경로당 미포함) .....	54
[표 33] 아동복지시설수준 공급수준 .....	54
[표 34] 장애인복지시설 공급수준 .....	54
[표 35] 보육시설 공급수준 .....	55
[표 36]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개요 .....	61
[표 37] 태안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 평가 및 발전방안 .....	82

##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8
[그림 2] 지역복지정책의 평가 변수 .....	15
[그림 3] 태안군청 사회복지팀 조직도 .....	25
[그림 4] 태안군청 사회복지팀 조직도 .....	49
[그림 5] 서천군청 복지인력 현황 .....	50
[그림 6] 서천군청 읍면 및 기타 복지인력 현황 .....	51
[그림 7] 태안군청 사회복지팀 조직도 .....	55
[그림 8] 금산군청 복지인력 조직도 .....	56
[그림 9] 질적연구 분석 체계 .....	63

##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연구의 체계

---

4. 연구의 경과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가 다양해짐

-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에는 특정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는데 치중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여 왔음
  -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의 인구·사회적 변화 등 다양한 변화요인들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는데 치중함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가 주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심화된 복지욕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졌음. 특히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중요함

#### ■ 지역에 따라 복지수준가 편차 심함

- 충남도 15개 시군은 사회복지대상자별 인구규모, 사회복지 인프라, 사회복지전문 인력 등 사회복지수준 차가 심함
- 향후 태안군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충남도 15개 시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태안군의 복지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2) 연구의 목적

#### ■ 태안군 현재 지역복지정책의 평가

- 태안군 사회복지대상자별 사회복지 영역 중 어느 부문이 활성화 되어있고 어느 부문이 취약한지에 대한 평가
- 충남도 다른 시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태안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누락된 복지정책은 없는가에 대한 검토

- 현재 태안군 복지정책의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 ■ 태안군 지역복지정책의 지향점 제시

-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타 지역 우수 복지 정책을 태안군에 접목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태안군 지역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 제시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 공간적 범위 : 태안군

####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7년도
- 과업기간 : 2017. 7. 4 ~ 11. 2(4 개월간)

#### ■ 내용적 범위

-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사회복지대상별 사회복지 시설 수 비교
- 사회복지대상별 인구(수요)·시설(공급)간 비율 분석
-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복지예산비율 비교
- 태안군 사회복지실무자 및 대상자 면접을 통한 태안군 복지수준 평가
- 우수복지정책지역 사례분석

## 2) 연구 수행 방법

### ■ 비교연구

- 충남도 15개 시군의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복지예산비율 비교
- 사회복지영역별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충남도 15개 시군의 사회복지 인프라 비교
  - 노인(65세 이상 노인)
  - 아동(0~18세)
  -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
  - 유아(0~6세 미만/어린이집, 3세부터 취학어린이/유치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저소득층)

[표 1] 시군에 정보를 공개를 요청한 사회복지시설과 대상인구(2016년 기준)

시설 구분	시설 유형	시설수	시설세부유형	세부 시설 수	대상인구	대상 인구수	관련 법
노인 복지 시설	생활		양로시설		65세 이상 노인		노인 복지법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이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아동 복지 시설	생활		아동양육시설		0-18세		아동 복지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이용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생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등급 1-6급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상품판매시설				
보육 시설	이용		국·공립 어린이집		0-6세 미만		영유아 보육법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타	이용		사회복지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사회복지 사업법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 사회복지대상별 인구(수요)·시설(공급)간 비율 분석 : 수급비율은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을 인구 1,000명당 복지시설 공급수준으로 파악
  - 충청남도 15개 시군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 충청남도 15개 시군 아동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 충청남도 15개 시군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 충청남도 15개 시군 보육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 충청남도 15개 시군 지역자활센터의 수요·공급간 비율
  - 충청남도 15개 시군 사회복지관의 수요·공급간 비율

■ 심층면접조사와 포커스그룹면접(FGI) 실시

- 태안군 사회복지 대상별 실무자(사회복지공무원 및 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 실시
- 태안군 사회복지 대상별 수혜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면접 (FGI) 실시

[표 2] 면접조사 내용

대상	내용
실무자	태안군의 복지특성, 기관 서비스 현황, 서비스 전달 시 애로사항, 서비스보완사항, 복지거버넌스, 공무원의 전문성 등
복지대상자	현재 태안군 복지서비스만족도, 복지서비스욕구, 생활상의 애로사항, 주민참여도(자원봉사자 등), 태안군 희망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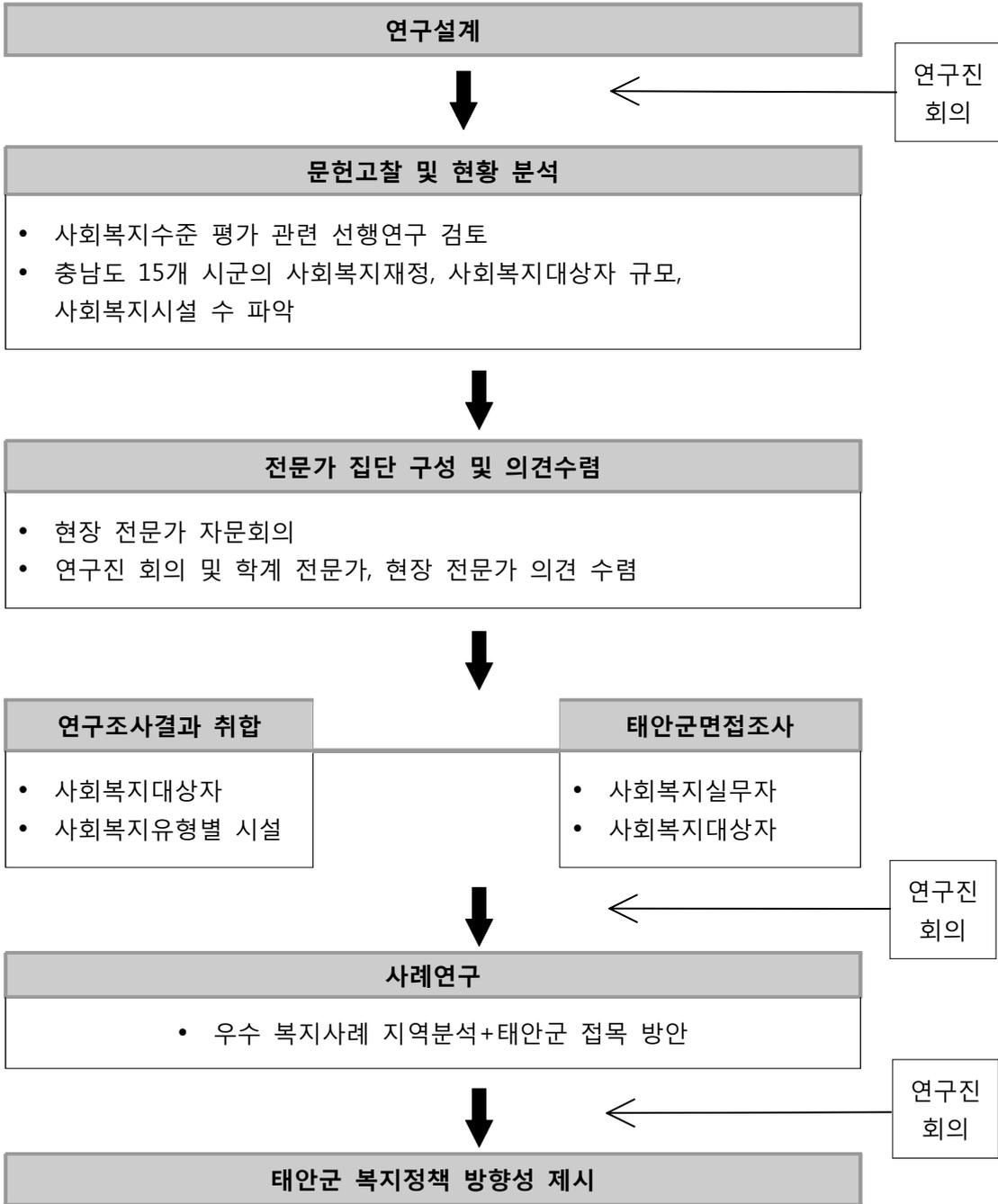
■ 우수복지정책지역 사례 분석

- 기존의 타 지역 우수복지 정책 발굴
- 타 지역 우수 정책을 태안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3. 연구의 체계

#### ■ 연구의 체계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4. 연구의 경과

- 2017년 6월 29일 연구용역계약 체결
- 2017년 7월 6일 연구용역 착수
- 2017년 7월 25일 충남도 모든 시군에 사회복지 인프라 정보 공개요청
- 2017년 7월 31일 착수보고회 개최
- 면접조사 및 FGI 실시(8월 23일~9월 20일)
  - 군청 및 읍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조사(총 11명)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등) 실무자 조사(총 7명)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조사(총 9명)

[표 3] 면접 대상자 개요

그룹	번호	분야	인터뷰 일시
1그룹 (공공 복지서비스 제공자)	A	지역복지	8월 23일
	B	전달체계 생활보장	8월 23일
	C	저소득층	8월 23일
	D	의료복지	8월 23일
	E	노인복지	8월 23일
	F	주거정책	8월 23일
	G	장애인복지	8월 28일
	H	맞춤형복지	8월 24일
	I	건강보험	8월 24일
	J	지역복지	8월 24일
	K	지역복지	8월 31일
2그룹 (민간 복지서비스 제공자)	L	사회복지협의회	8월 23일
	M	자활센터	8월 23일
	N	장애인복지	8월 28일
	O	장애인복지	8월 28일
	P	유아·아동복지	8월 31일
	Q	다문화복지	8월 31일
	Z	노인복지관	9월 20일

그룹	번호	분야	인터뷰 일시
3그룹 (복지서비스 이용자)	R	장애인복지	8월 24일
	S	노인복지	8월 31일
	T	노인복지	8월 31일
	U	노인복지	8월 31일
	V	청소년복지	8월 31일
	W	청소년복지	8월 31일
	X	청소년복지	8월 31일
	Y	유아·아동복지	8월 31일
	Z1	노인복지관	9월 20일
		공공서비스제공자: 11명 민간서비스제공자: 7명 서비스이용자: 9명 총: 27명	

- 2017년 10월 25일 중간보고회 개최
- 2017년 11월 13일 최종보고회 개최

## 제2장 이론적 배경

1. 비교연구의 유용성과 한계
  2. 지역 복지정책 평가의 이론적 검토
-



## 1. 비교연구의 유용성과 한계

### ■ 비교연구의 장점

- 비교연구 방법은 연구대상간에 차이점과 유사점을 개념과 변수를 활용하여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Warwick and Osherson, 1973 : 8-11)
- 대조연구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단선적으로 상호 대조 혹은 대비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연구 방법이지만 비교연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결과로 만들어 내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원인들을 밝히는 방법임
- Rodgers는 비교연구는 특정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별 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주고 비교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줌. 기존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얻게 하는 창조적인 사고력도 증가 시켜줌(Rodgers, 1979)
- 비교사회정책 연구는 한 국가나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조건과 상황을 조명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다른 지역의 특정정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거나 혹은 자신의 형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을 줌(Maidson, 1980)
- 사회정책에 있어서 비교연구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사이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줌(Higgins, 1981:12). 개별 국가(지역)의 복지체계가 특수한 것인지 또는 다른 나라(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유사한 성질을 띤 것인지는 비교연구를 통해서만 가능

### ■ 비교연구의 조건과 한계

- 비교연구는 비교연구 방법의 자체의 여러 가지 한계도 지니고 있음(Prezeworski and Tenue , 1970 : 14-28, 현외성). 비교연구에서 개념의 등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혼함
- 개념의 등치(conceptuel equivalence) : 비교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은 연구대상의 사회적 단위에서 등치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측정의 유용성(equivalence of measurement) : 비교연구 방법이 갖는 또 하나의 한계는 올바른 측정이 어려움. 즉 비교연구에서 생각을 동등하게 제시하여 주는 지표(indicator)를 개발하기 어려움

- 언어의 등치(linguistic equivalence) : 비교연구방법의 쟁점은 언어의 등치인데 이는 비교연구에서 사용되는 언어 자체가 등치관계를 이루기가 어려움
- 표본유출상의 문제 : 비교연구과정에서 표본유출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문제가 발생가능한 요소는 조사연구 지역의 선정, 조사방법의 선정, 모집단의 선정, 주요개념을 측정키 위해서 사용되어온 지표의 선정, 여러 지표를 조합하여 지수(indices)를 만들 때 등에 내포된 문제점이 있음

## 2. 지역 복지정책 평가의 이론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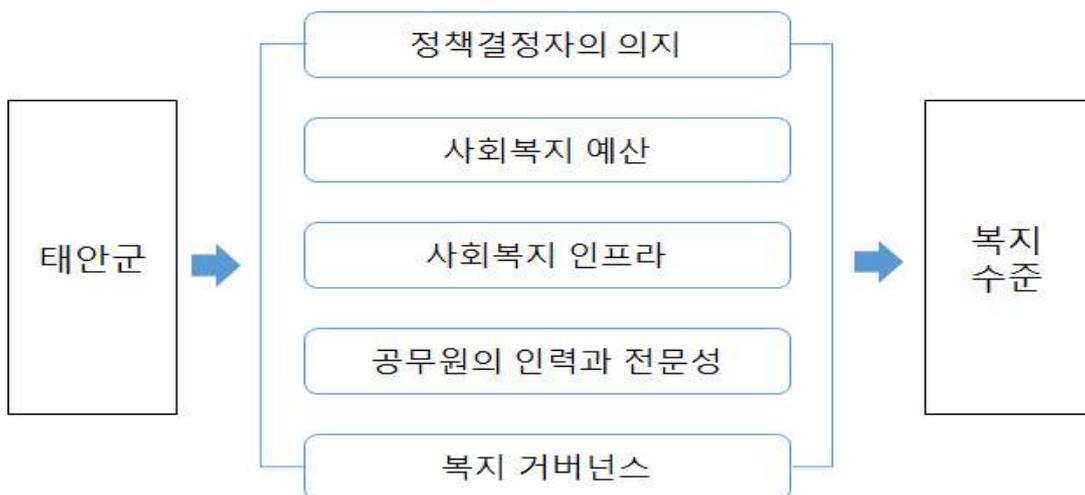
### ■ 지역복지 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지표)

- 정책결정자(단체장)의 의지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대립·갈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 정책형성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노화준, 1990, 96~103)
  -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의 영향에서 지역 복지 정책은 자유로울 수 없음
  - 남양주의 예) : 남양주시는 현 이석우 시장 부임 전에는 복지 주변부로 복지 후진지역이었지만 지역 복지정책에 관심이 있는 이석우 시장 부임후, 전 달체계의 개선 등 획기적인 복지정책의 혁신으로 전국적으로 지역복지정책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음

1) 남양주시는 얼마 전까지 복지에 관하여 '사각지대'의 전형을 보여준 도시이다. 도농복합도시의 일반적인 문제점 즉, 재정기반 약화와 기반시설 부족, 산과 산 사이에 조성된 다핵도시로 인해 빚어지는 이동성과 접근성 부족, 그 와중에 경제력이 부족한 인구의 급작스런 유입, 도시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에서 필요로 하는 지도력의 부재와 더불어 지역 토착세력의 강한 영향력 등의 특징을 보여주는 21세기의 20세기 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서울에서 유입된 젊은 층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하는 남양주', '몸은 여기 살아도 마음은 저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남양주의 현실이었다(2009 u-쾌한 도전을 운영백서). 그 결과 2007년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07년에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를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공동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복지육구는 많으나 복지서비스 제공에 역량부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 1기 사회복지협의체가 출범함으로써 네비게이션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의 희망케어센터(희망케어센터는 사례관리 위주로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무한돌봄센터도 희망케어센터의 벤치마킹이며, 희망복지지원단도 이를 모방하여 만들어졌다)가 나올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남양주시 이석우 시장이 '명품복지 실현'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희망케어센터 설치와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의회가 예산배정에 협력해 줌으로써 남양주시의 복지총량 증가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되었으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온도가 많이 상승하였다. 이제 복지에 관한 남양주는 벤치마킹하러 다니는 지자체가 아니라 벤치마킹하러 오는 지자체가 되었다. 이와 같이 복지에 있어서 변방에 불과하던 남양주시가 타 시군의 부러움을 사는 모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중심에는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었다(U-쾌한 남양주 운영백서, 2007).

- 사회복지 예산
  -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회복지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임
  - 이른바 복지 선진국이라 인정되는 국가들의 사회복지예산은 이를 증명해 줌. 스웨덴 사회복지예산은 GDP의 28.1%, 프랑스 31.9%, 독일 25.8%, 한국 10.4%임 (2014 기준)
- 사회복지 시설(인프라)
  - 사회복지 대상별 사회복지시설에는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수혜자 만족도에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변수의 하나임
- 공무원의 인력과 전문성
  - 사회복지 업무는 그 속성상 대민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전담 인력의 수와 전문성이 결정적임
  - 지역복지정책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에 봉사하기 위한 각종의 제도들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가슴과 창의성속에서 나오기 때문임
- 복지거버넌스
  -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복지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등 민·관의 협치 정도 역시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한 요소임

[그림 2] 지역복지정책의 평가 변수



## ■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

- 지역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변수에는 계량화 할 수 있는 객관적 변수와 계량화가 불가능한 주관적 변수가 있음
- 객관적 변수
  - 사회복지 예산
  - 사회복지 시설 인프라
  - 공무원의 인력수
- 주관적 변수
  - 정책결정자의 의지
  - 복지거버넌스
  - 공무원의 전문성
-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은 정책결정자의 의지 같은 주관적 변수 보다는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조건(예산, 인프라)에 의해 지배된다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임(Logan and Molotch,1987)
  - 실제로 충남도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이나 인프라가 풍부한 천안, 아산, 당진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사회복지 선진 지역임
-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예산과 사회복지 인프라 등의 객관적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태안군의 복지수준을 평가하지만 주관적 변수 역시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임

## 제3장 태안군 복지 정책 현황

1. 태안군 일반 현황

2. 태안군 사회복지 현황

---



# 1. 태안군 일반 현황

## ■ 지역사회의 진단<sup>2)</sup>

- 지리적 여건
  - 충청남도의 도청이 위치한 홍성으로부터 서북쪽으로 48.32K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로부터 141.89Km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음
  - 동쪽 끝은 126° 26' 로 태안읍 인평리이고 서쪽 끝은 126° 25' 로 근흥면 신진도리의 격렬비열도임
  - 북단은 북위 36° 58' 으로 이원면이며, 남단은 36° 23' 으로 고남면 고남리임
  - 태안군은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써 국내 유일한 해안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안선의 길이가 530.8km이며 곳곳마다 절경을 이루고 있고, 또한 119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분포되어 있음
  - 내륙은 저산성 구릉지로서 많은 산지가 개간지로 개발되어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리아시스식 해안은 만곡이 심하여 간척지가 잘 개발되어 있음
  - 태안군은 안면도 천연송림과 아름다운 해안을 있는 30여개의 해수욕장과 전 설을 간직한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음

## ■ 지리적 특성

- 태안읍
  - 태안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통 등의 중심지로서, 8개 읍면의 관문의 요충지로 자리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13개 법정리에 43개의 행정리와 206개의 반, 90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음
  - 총면적이 70.49km<sup>2</sup>로서 태안군 총면적의 15.1%에 해당되는데, 이는 안면읍과 원북면 다음으로 세 번째에 속함
- 안면읍
  - 안면읍의 소재지는 승언리 1015에 자리하고 있는데, 행정 구역상으로 6개 법정리에 178개 반과 127개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음
  - 안면읍의 국사봉을 제외한 산지의 대부분이 50-60m 이하로 이루어진 야산의 구릉지대로 되어 있어 대규모의 목장과 또는 농장지로 이용되고 있음

2) 태안군의 지역사회진단은 '제3기 태안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발췌한 것임

- 고남면
  - 고남면의 소재지는 고남리 1264-4에 자리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3개 법정리, 54개 반과 38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음
  - 고남면은 안면도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전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섬이지만 안면읍과 접해있으므로 북쪽은 연륙되어 있으며 3면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음
- 남면
  - 남면의 면적은 43.29km<sup>2</sup>로서 태안군의 8개읍면 중에서 6번째에 해당되며, 행정상으로는 9개의 법정리, 74개의 반, 그리고 72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음
  - 전면적의 65% 이상이 산지로 되어있으나 모두 74m이하의 야산인 구룡지대 이므로 대부분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근래에 들어와 간척지가 발달되어 곳곳에 소규모의 평야를 조성해 놓았음
- 근흥면
  - 근흥면의 면적은 52.02km<sup>2</sup>이며 그리고 행정 구역상으로는 9개 법정리에 87개 반과 47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는데, 총면적은 52.02km<sup>2</sup>로서 태안군 면적의 11.1%를 차지하고 있음
  - 근흥면은 전면적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어, 넓은 농경지는 많지 않으나 곳곳에 간척지가 발달되어 있어 소규모의 평야가 펼쳐 있으므로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또한 3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반도이므로 수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음
- 소원면
  - 소원면은 태안군 8개읍면 중에서 네번째로 큰 지역인데, 그 총면적은 69.27 km<sup>2</sup>이며, 행정구역상으로 소원면은 9개 법정리에 85개 반과 61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었음
  - 전면적의 약 75%가 산지로 덮여있으며, 태안반도의 최서단에 자리하고 있는 소원면은 동쪽을 제외한 3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데, 만리포, 천리포 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어 여름철이면 육객들이 운집하고 있는 명승지임
- 원북면
  - 원북면의 소재지는 반계리 171에 자리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11개 법정리에 84개 반과 40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음
  - 총면적의 약 70% 이상이 산지로 형성되어 있어 평야가 적은 편이나, 다행이도 간척지로 이룩된 신두리 평야가 유일하게 펼쳐있어 영농의 일익을 맡고 있음
  -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며, 원북면의 총면적은 73.16km<sup>2</sup>로서 태안군 8개 읍면 중에서 안면읍 다음의 두번째로 넓은 지역임

- 이원면
  - 이원면은 1989년 1월 1일 법률 제 4050호에 따라 태안군이 복군됨으로서 다시 태안군의 관할지역으로 편입되어 총면적 49.66km<sup>2</sup>으로 43개의 반으로 형성되어 있음
  - 평탄한 지형에 방조제를 따라 염전이 산재해 있고 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함

## 2. 태안군 사회복지 현황

### 1) 태안군 복지 대상자 등 인구 현황자료

#### ■ 태안군 총인구 현황

- 2017년 1월 기준. 태안군의 인구는 30,274세대 63,6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 그 중 태안읍의 인구는 29,048명으로 전체 인구의 45.5%를 차지함

[표 4] 태안군 총인구 현황(2017.1.1. 기준)

세대별		성별		비고
가구수	인구수	남	여	
30,274	63,678	32,157	31,521	거주불명자 포함

출처 : 태안군청 내부자료

#### ■ 생애주기별 인구 현황

- 태안군의 생애주기별 인구 현황은 영유아(0~5세)는 2,297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음. 아동(6세~12세)은 3,048명으로 4.8%, 청소년(13세~24세)은 7,187명으로 11.3%,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중장년은 34,523명으로 54.2%,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623명으로 26.1%이고 9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3명으로 0.2%임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4년 15,795명, 2015년 16,353명, 2016년 16,762명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26.1%로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시책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전망됨
- 출생인구 월평균 10명 내외, 노인인구 월평균 50명 증가하고 있음

[표 5] 생애주기별 인구현황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 (0~5세)	아동 (6~12세)	청소년 (13~24세)	중장년 (25~64세)	노인 (65+)	고령노인95+	비고
인구수	2,297	3,048	7,187	34,523	16,623	103	*100세 이상 24명
비율	3.6	4.8	11.3	54.2	26.1	0.2	총인구 대비

출처 : 태안군청 내부자료

### ■ 사회복지대상자 유형별 인구현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7년 1월 기준, 2,052명이고 차상위계층은 1,403명으로 3,455명임
- 태안군의 독거노인은 4,262명이고 장애인은 4,829명임

[표 6] 복지대상자 유형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비고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구수	3,455	2,052	1,403	4,262	4,829	*기초수급가구수 1,455가구 *저소득층 비율 전체인구의 5.4%

출처 : 태안군청 내부자료

### ■ 복지대상자 읍면별 현황

- 태안군 복지대상자 읍면별 현황은 태안읍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이원면은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 7] 복지대상자 읍면별 현황(2017.1.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태안	안면	고남	남	근흥	소원	원북	이원	시설
기초수급	2,052	879	304	90	119	193	219	114	49	49
차상위	1,403	604	264	69	76	136	124	70	60	60
의료급여	1,863	807	283	78	114	195	210	118	58	

출처 : 태안군청 내부자료

## 2) 태안군 사회복지 예산

### ■ 태안군 재정현황

- 2017년 태안군의 총예산은 약 4,528억원으로 전년대비 10.28% 증가함.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약 727억 원으로 태안군 전체 예산의 16.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26% 증가하였음. 보건 분야의 예산은 약 117억원으로 태안군 전체 예산의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7.36%가 증가하였음

### ■ 태안군 영역별 사회복지 예산현황

- 태안군 사회복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영역은 노인·청소년으로 5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육가족 및 여성으로 16.16%이고 기초생활보장이 12.82%, 취약계층지원이 10.11%임
- 2016년 대비 2017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 청소년 영역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음

[표 8] 2017년 태안군 영역별 사회복지예산 현황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사회복지 전체	72,765,003	100%	3.9%
기초생활보장	9,330,879	12.82%	13.7%
취약계층지원	7,355,337	10.11%	5.8%
보육·가족 및 여성	11,760,330	16.16%	- 7.8%
노인·청소년	41,066,076	56.44%	7.2%
노동	792,800	1.17%	-3.0%
보훈	1,948,450	2.24%	24.3%
사회복지일반	511,131	0.73%	0.4%

출처 : 태안군 내부자료

### ■ 사회복지 팀별 예산현황

- 태안군 사회복지 팀별 예산현황은 복지정책팀이 10,071,718천원으로 경로복지팀이 이어 두 번째임. 복지정책팀의 단위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의료서비스 제공, 저출산 대책, 보훈, 부서운영 등임
- 통합조사관리팀의 예산현황은 6,000천원으로 통합조사관리의 단일한 업무담당
- 행복키움지원팀의 예산현황 1,107,125천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 사례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 경로복지팀의 예산현황은 35,568,583천원으로 태안군 팀별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이는 노령연금의 예산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장애인 재활팀의 예산현황 6,415,062천원으로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9] 2017년 태안군 팀별 사회복지예산 현황

(단위 : 천원)

팀 구분	단위사업	예산액
계		53,168,488
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수급권자의료서비스제공 (특별회계) 보훈 행정(부서)운영 (통합관리)자활기금 (기금운영) 저출산대책	10,071,718
		5,953,443
		336,280
		454,132
		1,612,640
		83,316
		1,130,907
501,000		
통합조사관리	통합조사관리	6,000
행복키움지원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연계 주민자치운영지원(자원봉사센터) 자연재난 복구지원	1,107,125
		767,961
		328,759
경로복지	행복한노후생활지원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10,405
		35,568,583
장애인재활	장애인복지지원	35,559,183
		9,400
		6,415,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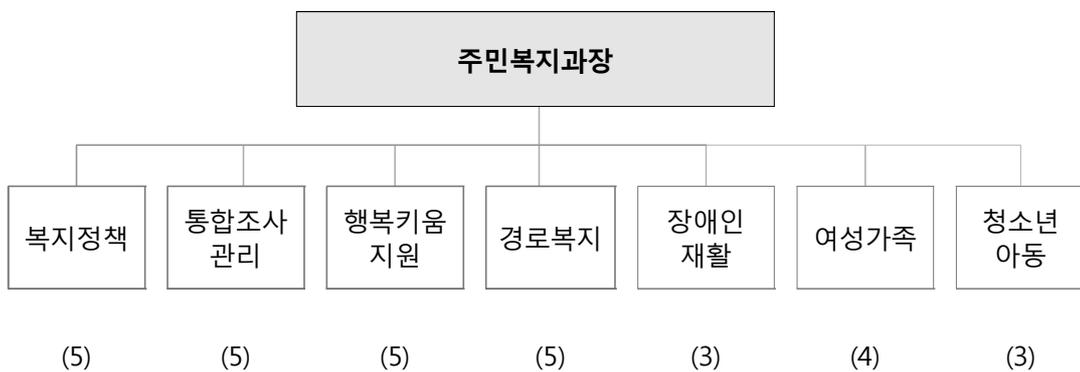
출처 : 태안군 내부자료

### 3) 태안군 사회복지 전문인력 현황

#### ■ 태안군청 조직 및 직원현황

- 태안군청의 사회복지 인력 현황은 2017년 5월 1일 기준, 7개팀 31명으로 정원 33명, 현원 31명, 무기직 3명임
  - 조직 : 7개팀 31명 (정원33, 현원31 / 무기3, 기간제)

[그림 3] 태안군청 사회복지팀 조직도



출처 : 태안군청 내부자료

- 태안군청의 사회복지 7개팀의 구성은 복지정책팀 5명, 통합조사관리팀 5명, 행복키움지원팀 5명, 장애인재활팀 3명, 여성가족팀 4명, 청소년 아동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7개팀의 사회복지정책팀 중 복지정책팀, 통합조사관리팀, 경로복지팀은 각각 1명의 무기계약직을 행복키움지원팀은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정원의 직원으로 두고 있음
  - 여성가족팀은 2명의 무기계약직 이외에도 15명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들과 더불어 여성가족복지업무를 수행중임
  - 청소년아동팀은 3명의 정직원 이외에도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 사업에 12명의 인력을 두고 있음

[표 10] 태안군 사회복지팀 인력 현황

팀 구분	현원	(31명)					(35명)
과장	1	최승자					
복지정책	5(1)	장경희	황규희	강혜정	안혜진	이다현	김미경(무기)
통합조사관리	5(1)	신명순	박대일	황윤정	김두리	유광수	김다현(출산대체)
행복키움지원	5(3)	김동선	손필성	노소영	전지영	조은지	박성희(사례관리) 조은영( " ) 김민희( " )
경로복지	5(1)	문경신	송기웅	가순권	송현길	김기영	오현미(일자리전담)
장애인재활	3	김성호	윤진숙	이주형			
여성가족	4(17)	강미경	김태영	권혜옥	김 영		최한열, 허순자 (무기) 안경순(취업상담) 고미숙(건가다가사무국장) 교육문화팀 조별님/김순예/정명지/홍계연/ 이지연 가족특성화팀 선우경/임미금/양수진/황진선/ 박미희 상담사례관리팀 강양미/강은정/강미라
청소년아동	3(12)	문희정	김수연	문 설			청소년수련관 안대영/정민호/김지수/한상덕/ 조미란 방과후아카데미 유용희/조영임/김태식 드림스타트 이은성/최윤자/안효윤/최수연

■ 태안군 읍면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현황

- 태안군 읍면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현황은 모두 25명임
  - 태안읍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안면읍이 6명, 나머지 면들은 2명씩임
  - 읍면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외에도 장애인도우미, 방문간호, 노인일자리 업무 등에서 계약직 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음

[표 11] 태안군 읍면 사회복지 인력 현황(2017년 8월 기준)

읍면	복지업무수행인력 (명)			非공무원 (도우미/방문간호)	비고
	계	팀장	팀원		
계	25	10	15	15	
태안읍	4	1	3	장애인도우미1 노인일자리1	주민복지팀/팀장 사회복지직
	3	1	2	방문간호1	맞춤형복지팀(기본형) 팀장 사회복지직
안면읍	3	1	2	노인일자리1	주민복지팀/팀장 사회복지직
	3	1	1	방문간호1	맞춤형복지팀(권역형) 팀장 사회복지직
고남면	2	1	1	장애인일자리1	팀장 행정직
남면	2	1	1	노인일자리1 장애인도우미1	팀장 행정직
근흥면	2	1	1	노인일자리1 장애인도우미1	팀장 행정직
소원면	2	1	1	노인일자리1 장애인일자리1	팀장 사회복지직
원북면	2	1	1	노인일자리1 장애인도우미1	팀장 행정직
이원면	2	1	1	장애인도우미1	팀장 행정직

## 4) 태안군 주요 사회복지 정책 현황

### ■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현황

- 민선 6기 태안군 사회복지 분야 공약은 태안군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담당 팀은 행복키움지원팀임
  - 나눔문화 확산은 종교계 등 다양한 계층의 나눔문화 체계를 정립하여 지역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참여적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을 도모하는 추진 배경임
  - 나눔문화 확산은 세부적으로 복지자원과 어려운 이웃에 직접 연결하는 네트워크 조성이 사업 목적임
  - 사업내용은 연 2회 복지간담회 개최, 사회봉사, 성금모금행사 등을 추진하는 것임
- 행복키움지원팀은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 및 활성화 업무도 공약 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음
  -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 및 활성화는 자원봉사 활동의 수요와 공급의 다양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민간영역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것이 추진배경임
  -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 및 활성화의 사업목적은 자원봉사수요와 공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자원봉사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사업내용으로는 신규자원봉사자 발굴 및 지속적인 자원봉사 향상임
- 태안군은 거점별 노인복지관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추진배경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이 시급함 (2016,10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6.25%으로 초 고령사회로 진입함, 전국 평균 13.4%, 충남 평균 16.65%임)
  - 태안읍 남문리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의 여가건강일자리 제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내용임
- 어르신노래교실, 노인대학, 건강교실지원확대 역시 민선 6기 공약 사항임
  - 어르신노래교실, 노인대학, 건강교실지원확대사업의 추진배경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의 능력을 최대화하고 노인의 능력을 최대화하고 노인의 자아정체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필요함
  -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 취미생활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인교실 기능을 강화하여 노인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임

-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서비스 기반조성 역시 민선 6기 공약사항임
  -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서비스 기반조성 사업은 장애인 복지가 시혜의 관점에서 자립의 관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에 따라 이 사업이 공약사항으로 제기됨
  - 사업목적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안정적인 생활안정대책 및 일자리 제공임
  - 사업대상은 소득기반미약 장애인 및 근로가능 장애인이고 사업내용은 관의 주도하에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자립지원임

[표 12] 민선6기 공약사항 목록

연번	공 약 과 제 명	담당팀	비 고
1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행복키움지원	
2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 및 활성화	행복키움지원	
3	거점별 노인복지관 건립추진	경로복지	
4	어르신노래교실,노인대학,건강교실지원확대	경로복지	
5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서비스 기반조성	장애인재활	
6	장애인 복지관 확충 및 효율화	장애인재활	

### ■ 2016년 하반기 주요 사회복지사업

-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주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보조를 맞추어 태안군에서도 읍면 맞춤형복지팀을 강화하는 사업 추진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제는 태안군민을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통해 민원 편의 제공 및 심층 상담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및 장애인, 복지소외계층 등이고 사업내용은 복지소외계층발생시 각 분야별 담당자의 협업을 통한 현장 방문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복지홍보전은 복지박람회 등을 통하여 태안군의 복지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한 사업임

- 효문화 확산은 개인주의의 심화 등으로 한국 고유의 효도문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에 맞서 경로문화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임
- 태안군은 농어촌 낙후지역으로 노인장애인이 증가하고 자동적으로 복지서비스 수요가 많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 활성화 사업이 주요 복지 사업으로 대두됨
  - 사업목적은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제공으로 인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모두가 행복한 태안군 건설임
  - 주요 사업 내용은 돌봄필요 및 거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운영하는 것임

[표 13] 2016년 하반기 주요사업

연번	과 제 명	담당팀	비고
1	읍면복지허브화사업	복지정책 행복키움지원	
2	안면반도동산 정비	복지정책	
3	찾아가는복지상담제	통합조사관리	
4	복지홍보전	행복키움지원	
5	노인종합복지관건립	경로복지	
6	효문화확산	경로복지	
7	장애인복지관활성화	장애인재활	

## 5) 태안군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현황

### ■ 태안군 사회복지 인프라

- 노인복지 인프라
  - 태안군 노인복지 시설 수는 251개(소)로 그 중 생활시설은 15개, 이용시설은 236개임
  - 전체 시설 중 경로당이 23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노인공동생활가정이 하나도 없으므로 태안군의 노인인구 비율과 독거노인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노인공동생활가정이 확충이 요구됨
- 아동복지인프라
  - 태안군 아동복지 시설 수는 10개로 그 중 생활시설은 2개, 이용시설은 8개임
  - 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 인프라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태안군 아동복지 시설의 다양화가 요구됨
- 장애인복지인프라
  - 태안군 아동복지 시설 수는 5개로 그 중 생활시설은 1개, 이용시설은 4개임
  - 생활시설은 1개로 태안군 장애인복지 시설의 다양화가 요구됨
- 보육인프라
  - 태안군 보육복지 시설 수(모두 이용시설)는 50개임
  - 국공립 유치원이 22(사립유치원 1개소)개인데 반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1개로 군립과 사립의 비율이 맞지 않음
  - 태안군 보육시설은 부족하기 보다는 서비스의 질(質)이 문제일 수 있음
- 저소득층 인프라
  - 태안군의 지역자활센터는 다른 시군처럼 1개소가 있음
- 태안군의 충남도 군 단위지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은 존재하지 않음

[표 14] 사회복지 인프라와 대상인구(기준연도 : 2016년)

시설 구분	시설 유형	시설 수	시설세부유형	세부 시설 수	대상인구	대상 인구수
노인 복지 시설	생활	15	양로시설		65세 이상 노인	16,623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		
	이용	236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관	1		
			경로당	230		
			노인교실	3		
			노인보호전문기관	1		
아동 복지 시설	생활	2	아동양육시설		0-18세	8,516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2		
	이용	8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8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인 복지 시설	생활	1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등급 1-6급 등록 장애인	4,829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용	4	장애인 복지관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1		
			수화통역센터	1		
			점자도서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		
장애인생상품판매시설						
보육 시설	이용	50	국·공립 어린이집	1	0-6세 미만	2,297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5		
			법인·단체 어린이집	2		
			민간 어린이집	13		
			가정 어린이집	3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3		
			국·공립 유치원	22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	1,237
			사립 유치원	1		
			사회복지관			
기타	이용	0	사회복지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3,455
		1	지역자활센터	1		

## 6) 태안군 사회복지의 특성

### ■ 지리적으로 긴 면적

- 태안군의 면적이 길다보니(해안선의 길이 530.8km) 다른 시군에 비하여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이 떨어짐
- 농어촌 지역의 특성으로 태안군은 상대적으로 복지자원이 풍부하지 않음
- 산부인과, 정신과 등 의료 서비스 영역이 매우 취약함

### ■ 태안읍에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됨

-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이 최근에 확충됨. 태안읍에 몰려 있음 (태안읍의 인구는 29,048명으로 전체 인구의 45.5%를 차지)
-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태안읍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편차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됨

### ■ 태안군은 상대적으로 고립된 지역임

-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므로 태안군은 사회복지인력난을 겪으며 외부 우수인력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제4장 비교분석

1. 사회복지 예산 비교
  2.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비교
  3. 태안군과 서천군의 사회복지 수준 비교
  4. 태안군과 금산군의 사회복지 수준 비교
-



## 1. 사회복지 예산 비교

### ■ 충남도 15개 시군의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복지예산 비교

-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비율을 의미하며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지므로 재정자립도에 비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지자체의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지표
-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전체 세출결산액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지출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따라서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율 비교를 통하여 태안군의 복지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음
- 태안군의 재정자립도는 15개 시군중에 8위임
- 태안군의 재정자주도 15개 시군중에 6위임
- 태안군의 복지예산비율은 15개 시군중 14위임(청양군이 최하위)
- 논산, 서천, 부여 등 내륙지역은 재정자립도 낮지만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높음(20%초과). 따라서 태안군도 향후 서천, 부여 수준까지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높여야 함
- 태안군 내부자료에서도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전체 예산의 16.07%였음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 태안군 기능별 예산현황은 농림수산분야(22.12%) > 사회복지분야(16.07%) > 산업·중소기업분야(14.56%) > 환경보호분야(12.33%) > 문화 및 관광분야(5.76%) 순임
  - 태안군의 예산 비중 중 사회복지분야는 농림수산분야에 이어 두 번째이나 향후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수준까지 예산 비율을 상향해야 함

[표 15]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복지예산 비교(%)

시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예산 비율
천안	46.09	67.75	34.49
공주	18.40	67.06	24.18
보령	21.26	65.75	24.57
아산	47.11	62.23	31.30
서산	35.41	68.30	24.47
논산	16.89	61.83	29.20
계룡	21.89	77.25	24.0
당진	37.57	69.45	22.21
금산	19.83	64.62	22.43
부여	12.74	55.51	20.49
서천	12.58	62.55	23.90
청양	16.72	65.04	15.17
홍성	20.89	63.56	21.19
예산	19.50	63.36	19.33
태안	19.58	66.56	18.99

출처 : 온라인 지방재정365 (2017, 11월 현재)

## 2.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비교

### ■ 사회복지인프라와 대상인구 (15개 시군)

- 수급비율은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을 인구 1,000명당 복지시설 공급수준으로 파악
  - 충청남도 15개 시군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 충청남도 15개 시군 아동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 충청남도 15개 시군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 충청남도 15개 시군 보육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 충청남도 15개 시군 지역자활센터의 수요·공급간 비율
  - 충청남도 15개 시군 사회복지관의 수요·공급간 비율

[표 16] 시군별 사회복지인프라 · 대상인구 · 공급수준

지역	구분		시설수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천안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790	57,001	13.85941
		경로당 미포함	84	57,001	1.473658
	아동복지시설		75	130,978	0.572615
	장애인복지시설		24	24,713	0.971149
	보육시설		703	39,381	17.85125
	지역자활센터		1	4,858	0.205846
	사회복지관		2	614,367	0.003255
공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444	24,213	18.33726
		경로당 미포함	31	24,213	1.280304
	아동복지시설		9	15,706	0.573029
	장애인복지시설		17	8,696	1.954922
	보육시설		81	2,390	33.89121
	지역자활센터		1	4,999	0.20004
사회복지관		2	110,121	0.018162	
보령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411	22,662	18.13609
		경로당 미포함	16	22,662	0.706028
	아동복지시설		11	15,527	0.708443
	장애인복지시설		6	8,448	0.710227
	보육시설		66	11,256	5.863539
	지역자활센터		1	7,324	0.136537
사회복지관		1	104,015	0.009613	
아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563	35,067	16.054980
		경로당 미포함	52	35,067	1.482875
	아동복지시설		49	68,611	0.714171
	장애인복지시설		14	14,631	0.956872
	보육시설		442	27,157	16.27573
	지역자활센터		1	7,564	0.132205
사회복지관		5	317,366	0.015754	
서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415	28,571	14.52522
		경로당 미포함	41	28,571	1.435022
	아동복지시설		16	34,112	0.469043
	장애인복지시설		11	9,245	1.189832
	보육시설		155	10,136	15.29203
	지역자활센터		1	3,594	0.278241
사회복지관		2	170,329	0.011741	

지역	구분		시설수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논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556	28,057	19.8168
		경로당 미포함	42	28,057	1.496953
	아동복지시설		26	19,304	1.346871
	장애인복지시설		8	10,614	0.753721
	보육시설		91	5,806	15.67344
	지역자활센터		1	6,972	0.143431
	사회복지관		0	123,582	0
계룡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45	3,815	11.79554
		경로당 미포함	10	3,815	2.621232
	아동복지시설		3	10,922	0.274675
	장애인복지시설		4	1,527	2.619515
	보육시설		54	3,950	13.67089
	지역자활센터		0	565	0
	사회복지관		0	42,549	0
당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375	28,129	13.33144
		경로당 미포함	41	28,129	1.45757
	아동복지시설		14	30,907	0.45297
	장애인복지시설		12	9,671	1.240823
	보육시설		162	7,481	21.65486
	지역자활센터		1	2,744	0.364431
	사회복지관		3	166,138	0.018057
금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344	14,847	23.16966
		경로당 미포함	21	14,847	1.414427
	아동복지시설		19	7,788	2.439651
	장애인복지시설		8	4,598	1.739887
	보육시설		34	1,918	17.7268
	지역자활센터		1	1,988	0.503018
	사회복지관		0	54,618	0
부여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483	20,772	23.25246
		경로당 미포함	25	20,772	1.203543
	아동복지시설		7	9,079	0.77101
	장애인복지시설		4	7,050	0.567376
	보육시설		56	4,418	12.67542
	지역자활센터		1	4,560	0.219298
	사회복지관		0	70,681	0

지역	구분	시설수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서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365	17,584	20.75751
		경로당 미포함	35	17,584	1.990446
	아동복지시설	12	6,316	1.899936	
	장애인복지시설	7	5,748	1.217815	
	보육시설	45	3,259	13.80792	
	지역자활센터	1	2,595	0.385356	
	사회복지관	0	56,113	0	
청양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312	10,394	30.01732
		경로당 미포함	11	10,394	1.058303
	아동복지시설	3	3,760	0.797872	
	장애인복지시설	3	3,098	0.968367	
	보육시설	15	1,221	12.285012	
	지역자활센터	1	1,040	0.961538	
	사회복지관	0	32,730	0	
홍성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469	21,687	21.625858
		경로당 미포함	30	21,687	1.383317
	아동복지시설	12	26,112	0.459559	
	장애인복지시설	6	6,871	0.873235	
	보육시설	91	4,110	22.14112	
	지역자활센터	1	3,216	0.310945	
	사회복지관	1	99,255	0.010075	
예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402	21,000	19.14286
		경로당 미포함	26	21,000	1.238095
	아동복지시설	13	10,613	1.224913	
	장애인복지시설	5	6,864	0.728438	
	보육시설	59	2,275	25.93407	
	지역자활센터	1	4,301	0.232504	
	사회복지관	0	81,560	0	
태안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252	16,623	15.15972
		경로당 미포함	22	16,623	1.323467
	아동복지시설	10	8,516	1.17426	
	장애인복지시설	5	4,829	1.035411	
	보육시설	50	2,297	21.767522	
	지역자활센터	1	3,455	0.289436	
	사회복지관	0	63,846	0	

### ■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경로당 포함)

- 태안군의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 공급수준은 15개 시군중 11위 수준임
  - 인구수가 적은 시군(청양, 부여, 금산, 홍성, 서천)일수록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로 인구수가 적은 군단위 지역이 높은 순위를 차지함
  - 특히 공급수준 1위를 차지한 청양은 인구 대비 경로당 수가 많이 분포(312개) 되어 있음
  - 태안군은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수(252개)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적어 하위권(11위)에 랭크됨

[표 17]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경로당 포함)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천안	790	57,001	13.85940598
공주	444	24,213	18.33725685
보령	411	22,662	18.13608684
아산	563	35,067	16.05498047
서산	415	28,571	14.52521788
논산	556	28,057	19.81680151
계룡	45	3,815	11.79554391
당진	375	28,129	13.33143731
금산	344	14,847	23.16966391
부여	483	20,772	23.25245523
서천	365	17,584	20.75750682
청양	312	10,394	30.01731768
홍성	469	21,687	21.62585881
예산	402	21,000	19.14285714
<b>태안</b>	<b>252</b>	<b>16,623</b>	<b>15.15971846</b>

### ■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경로당미포함)

- 태안군의 경로당을 포함하지 않은 노인복지 공급수준은 15개 시군중 10위 수준임
- 태안군 노인복지 공급수준(경로당 미포함)은 태안읍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되고 남부에 노인복지관이 완공되면 공급수준은 상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됨

[표 18]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경로당 미포함)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미포함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천안	84	57,001	1.473658357
공주	31	24,213	1.280303969
보령	16	22,662	0.706027712
아산	52	35,067	1.482875638
서산	41	28,571	1.435021525
논산	42	28,057	1.496952632
계룡	10	3,815	2.621231979
당진	41	28,129	1.457570479
금산	21	14,847	1.414427157
부여	25	20,772	1.203543231
서천	35	17,584	1.99044586
청양	11	10,394	1.058302867
홍성	30	21,687	1.383317195
예산	26	21,000	1.238095238
<b>태안</b>	<b>22</b>	<b>16,623</b>	<b>1.323467485</b>

■ 아동복지수준 공급수준

- 태안군의 아동복지인프라 공급수준은 15개 시군 중 5위 수준임
  - 태안군의 아동복지시설 수는 10개로 15개 시군 중 11위 수준으로 태안군의 아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적어 종합수위는 5위임
  - 아동복지시설 인프라 공급수준은 많은 비율은 차지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9] 아동복지수준 공급수준

시군별	아동복지시설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천안	75	130,978	0.572615248
공주	9	15,706	0.573029416
보령	11	15,527	0.708443357
아산	49	68,611	0.714171197
서산	16	34,112	0.469043152
논산	26	19,304	1.346871115
계룡	3	10,922	0.274674968
당진	14	30,907	0.452971819
금산	19	7,788	2.439650745
부여	7	9,079	0.771010023
서천	12	6,316	1.899936669
청양	3	3,760	0.79787234
홍성	12	26,112	0.459558824
예산	13	10,613	1.224912843
<b>태안</b>	<b>10</b>	<b>8,516</b>	<b>1.174260216</b>

## ■ 장애인복지시설 공급수준

- 태안군의 장애인복지인프라 공급수준은 15개 시군 중 7위 수준임
  - 태안군 장애인 복지시설은 5개로 계룡, 부여, 청양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준임
  - 특히 생활시설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한 개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음

[표 20] 장애인복지시설 공급수준

시군별	장애인복지시설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천안	24	24,713	0.971148788
공주	17	8,696	1.954921803
보령	6	8,448	0.710227273
아산	14	14,631	0.956872394
서산	11	9,245	1.189832342
논산	8	10,614	0.7537215
계룡	4	1,527	2.61951539
당진	12	9,671	1.240823079
금산	8	4,598	1.739886907
부여	4	7,050	0.567375887
서천	7	5,748	1.217814892
청양	3	3,098	0.968366688
홍성	6	6,871	0.873235337
예산	5	6,864	0.728438228
<b>태안</b>	<b>5</b>	<b>4,829</b>	<b>1.035411058</b>

## ■ 보육시설 공급수준

- 태안군의 보육시설인프라 공급수준은 15개 시군 중 4위 수준임
  - 태안군 보육시설 수는 50개로 금산, 서천에 이어 낮은 수준이나 보육시설 대비 대상인구수가 낮기 때문에 공급수준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1개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표 21] 보육시설 공급수준

시군별	보육시설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천안	703	39,381	17.85124806
공주	81	2,390	33.89121339
보령	66	11,256	5.863539446
아산	442	27,157	16.27573001
서산	155	10,136	15.29202841
논산	91	5,806	15.67344127
계룡	54	3,950	13.67088608
당진	162	7,481	21.65485898
금산	34	1,918	17.72679875
부여	56	4,418	12.67541874
서천	45	3,259	13.80791654
청양	15	1,221	12.28501229
홍성	91	4,110	22.14111922
예산	59	2,275	25.93406593
<b>태안</b>	<b>50</b>	<b>2,297</b>	<b>21.76752286</b>

■ 저소득 복지 공급수준

- 태안군의 저소득 복지 공급수준은 15개 시군 중 6위 수준임
-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수준은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지역자활센터)이 계룡시를 제외하고 시군마다 공히 1개씩 존재하므로 시군에 따른 공급수준의 편차의 큰 의미는 없음

[표 22] 저소득 복지 공급수준

시군별	지역자활센터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천안	1	4,858	0.205846027
공주	1	4,999	0.200040008
보령	1	7,324	0.136537411
아산	1	7,564	0.132205182
서산	1	3,594	0.278241514
논산	1	6,972	0.143430866
계룡	0	565	0
당진	1	2,744	0.364431487
금산	1	1,988	0.503018109
부여	1	4,560	0.219298246
서천	1	2,595	0.385356455
청양	1	1,040	0.961538462
홍성	1	3,216	0.310945274
예산	1	4,301	0.232504069
<b>태안</b>	<b>1</b>	<b>3,455</b>	<b>0.289435601</b>

### ■ 사회복지관 공급수준

- 충남도에서 사회복지관이 존재하는 시군은 천안, 아산, 공주, 서산, 당진, 보령 홍성 등으로 주로 시 단위는 모두 사회복지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태안군 같은 군단위는 홍성군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관이 존재하지 않음

[표 23] 사회복지관 공급수준

시군별	사회복지관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천안	2	614,367	0.003255383
공주	2	110,121	0.01816184
보령	1	104,015	0.009613998
아산	5	317,366	0.015754681
서산	2	170,329	0.011741982
논산	0	123,582	0
계룡	0	42,549	0
당진	3	166,138	0.018057278
금산	0	54,618	0
부여	0	70,681	0
서천	0	56,113	0
청양	0	32,730	0
홍성	1	99,255	0.010075059
예산	0	81,560	0
<b>태안</b>	<b>0</b>	<b>63,846</b>	<b>0</b>

### ■ 사회복지인프라 비교연구의 결론

- 충남도 다른 시군과 비교한 태안군 사회복지 인프라 수준은 정확한 현황이기 보다는 대략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비교연구임
- 태안군 사회복지 대상별 복지 인프라 수준은 15개 시군 중 4위에서 11위의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충남도 중하위권 수준임
  - 태안군 복지시설 공급수준은 분야를 망라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이는 태안군의 재정자립도 특히 사회복지예산비율(충남도 15개 시군중 14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3. 태안군과 서천군의 사회복지 수준 비교

#### 1) 비교의 가능성

##### ■ 두 시군의 유사성

- (인구규모) 태안군과 서천군은 인구 규모가 유사하여 비교연구가 유의미할 수 있음
  - 태안군 : 63,846 (2016년 10월 말 기준)
  - 서천군 : 56,113 (2016년 10월 말 기준)
- (지리적 여건) 태안군과 서천군은 모두 해안을 끼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라는 환경적 여건도 유사함
- (사회복지환경) 태안군이 사회복지시설이 태안읍에 집중 되어 있다면 서천군 역시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이 서천권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권역으로부터 접근성을 보장이 힘들다는 사회복지 환경도 유사함

#### 2) 태안군과 서천군의 복지수준 비교

##### ■ 예산비교

[표 24] 태안군과 서천군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복지예산 비교(%)

시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예산 비율
서천	12.58	62.55	23.90
태안	19.58	66.56	18.99

- 서천군의 재정자립도는 태안군보다 훨씬 못 미치지만(태안군의 2/3수준)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태안군보다 5%수준 정도 높아 25%까지 육박하고 있음

■ 사회복지인프라 비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표 25]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경로당 포함)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서천	365	17,584	20.75751
태안	252	16,623	15.15972

-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공급수준 태안군은 15.1 이고 서천군은 20.7임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미포함)

[표 26]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경로당 미포함)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미포함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서천	35	17,584	1.990446
태안	22	16,623	1.323467

- 경로당을 포함하지 않은 수 노인복지공급수준 태안군 1.32, 서천군 1.99임

- 아동복지시설

[표 27] 아동복지시설 공급수준

시군별	아동복지시설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서천	12	6,316	1.89993
태안	10	8,516	1.17426

- 아동복지 공급수준은 태안군 1.17, 서천군 1.89임

- 장애인복지시설

[표 28] 장애인복지시설 공급수준

시군별	장애인복지시설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서천	7	5,748	1.217815
태안	5	4,829	1.035411

- 장애인복지시설 공급수준은 태안군이 1.03 서천군이 1.21임

- 보육시설

[표 29] 보육시설 공급수준

시군별	보육시설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서천	45	3,259	13.80792
태안	50	2,297	21.76752

- 보육시설 공급수준은 태안이 21.7, 서천군이 13.8임

- 보육시설을 제외한 노인, 아동, 장애인 분야에서 태안군의 사회복지시설 공급수준이 서천군 보다 수치가 낮음

### ■ 복지 거버넌스

-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력이 자주 바뀌고 민과 관 사이에 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데 반하여 서천군은 각 읍면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후원회가 구성되어있음. 또한 서천군은 지역복지 선도 지역으로 민관협력 사업과 읍면 인적안전망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2014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민관 협력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음

### ■ 태안군과 서천군의 사회복지 인력 현황(군청)

- 태안군청의 사회복지 인력 현황은 2017년 5월 1일 기준, 복지정책팀 5명, 통합조사관리팀 5명, 행복키움지원팀 5명, 장애인재활팀 3명, 여성가족팀 4명, 청소년 아동팀 3명으로 7 개팀 31명임
- 태안군청 복지인력 조직 : 7개팀 31명

[그림 4] 태안군청 사회복지팀 조직도



출처 : 태안군청 내부자료

- 서천군청의 사회복지 인력 현황은 2017년 5월 1일 기준, 사회복지팀 5명, 희망복지팀 6명, 통합조사관리팀 8명, 노인복지팀 5명, 아동청소년팀 9명, 장애인여성가족팀 5명으로 6개팀 38명임
- 서천군청 복지인력 조직 : 6개팀 38명

[그림 5] 서천군청 복지인력 현황

<b>사회복지실 조직도 (직렬 포함)</b>								
<b>사회복지실장 (행정직)</b>								
<b>사회복지정책팀</b>			<b>희망복지팀</b>					
직위	직렬	비고	직위	직렬	비고	직위	직렬	비고
팀장	행정직		팀장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보건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	계약직	일자리전담	주무관	사회복지직				
-	계약직	의료급여	-	계약직	사례관리			
			-	계약직	사례관리			
<b>노인복지팀</b>			<b>장애인여성가족팀</b>					
직위	직렬	비고	직위	직렬	비고			
팀장	행정직		팀장	사회복지직				
주무관	시설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b>통합조사관리팀</b>			<b>아동청소년팀</b>					
직위	직렬	비고	직위	직렬	비고			
팀장	사회복지직		팀장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행정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	계약직	드림스타트센터			
주무관	사회복지직		-	계약직	드림스타트센터			
주무관	행정직		-	계약직	드림스타트센터			
			-	계약직	아동센터관리			

출처 : 서천군 내부자료

- 두 시군의 군청의 팀 구성에 있어 태안군청은 장애인과 여성가족을 묶어서 7개팀 인데 반하여 서천군은 장애인과 여성가족을 통합하여 6개 팀
- 인구수는 서천군이 적지만 군청의 인력은 7명이나 더 많음

■ 태안군과 서천군의 읍면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현황

- 읍면의 복지 인력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만족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 태안군은 2읍 6면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현황은 모두 25명임
- 서천군은 2읍 11면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현황은 모두 50명임

[그림 6] 서천군청 읍면 및 기타 복지인력 현황

읍면 및 기타 복지인력 현황 (직렬 포함)					
<b>장항읍</b>		<b>서천읍</b>		<b>마서면</b>	
맞춤형복지팀		맞춤형복지팀		맞춤형복지팀	
직위	직렬	직위	직렬	직위	직렬
팀장	사회복지직	팀장	사회복지직	팀장	농업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b>화양면</b>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맞춤형복지팀	
주무관	행정직	주무관	행정직	직위	직렬
<b>한산면</b>		<b>기산면</b>		팀장	세무직
맞춤형복지팀		맞춤형복지팀		주무관	사회복지직
직위	직렬	직위	직렬	<b>마산면</b>	
팀장	행정직	팀장	행정직	맞춤형복지팀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직위	직렬
주무관	사회복지직	<b>시조면</b>		팀장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맞춤형복지팀		주무관	사회복지직
<b>문산면</b>		직위	직렬	주무관	사회복지직
맞춤형복지팀		팀장	행정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직위	직렬	주무관	사회복지직	<b>판교면</b>	
팀장	행정직	<b>중천면</b>		맞춤형복지팀	
주무관	사회복지직	맞춤형복지팀		직위	직렬
<b>비인면</b>		직위	직렬	팀장	사회복지직
맞춤형복지팀		팀장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직위	직렬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팀장	행정직	<b>서면</b>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팀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직위	직렬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팀장	농업직	팀장	사회복지직
주무관	행정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무관	사회복지직
<b>도시건축과</b>		경관주택팀		주무관	사회복지직
경관주택팀		직위		직렬	
직위	직렬	비고			
주무관	사회복지직	주거급여			

출처 : 서천군 내부자료

- 태안군은 2읍 6면에 복지인력 25명, 서천군은 2읍 11면에 복지인력 50명으로 정확히 2배수임
- 행정직 비율이 높은 태안군과 달리 서천군은 군청의 행정직(실장 포함 4명)과 읍면의 행정직(8명) 비율은 높지 않아 서천군은 군청과 읍면을 막론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음
- **서천군과의 읍면 복지인력의 비교는 태안군이 시급히 읍면의 복지 인력을 충원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음**
- 서천군의 읍면의 복지인력은 서천군이 2015년도에 복지행정상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는 지역복지 선도 지역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토대가 되었음

### ■ 비교의 결론

- 태안군과 서천군은 인구규모와 물리적 환경은 유사하지만 예산, 인프라, 인력, 복지거버넌스 등의 복지환경 측면에서는 편차가 존재함
  - 특히 태안군 읍면의 복지인력은 서천군과 비교하면 정확히 절반이어서 다른 요소보다 편차가 심함
- 태안군과 서천군의 복지수준 격차는 먼저 예산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음
  - 서천군이 재정자립도(15개 시군중 최하위)는 낮지만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군의 예산에서 25%수준까지 확대하고 있음
- 예산적인 측면 외에도 서천군은 2008년도에 일찍 감치 전국 최고의 시설과 규모를 갖춘 복합노인복지단지(어메니티 복지마을)를 조성하는 등 복지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음
  - 9년 연속 복지우수 자자체로 선정된 서천군은 복지메카로,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전략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 단위 복지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빠르게 대처해 왔음
- 태안군이 서천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20%이상으로 투입하고 읍면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는 것임

## 4. 태안군과 금산군의 사회복지 수준 비교

### 1) 비교의 가능성

#### ■ 두 시군의 유사성

- (인구규모) 태안군과 금산군의 인구 규모 편차는 만 명 이하로 비교연구가 가능함
  - 태안군 : 63,846 (2016년 10월 말 기준)
  - 금산군 : 54,618 (2016년 10월 말 기준)
- (지리적 여건) 태안군과 금산군은 모두 군단위, 농촌 지역이라는 환경적 여건도 유사함. 금산군은 충남시군 중 6번째로 규모가 커서 태안군과 유사한 지역 여건임
- (재정자립도) 태안군과 금산군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각각 19.58%, 19.83%으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 수준 비교가 매우 의미있음

### 2) 태안군과 금산군의 복지수준 비교

#### ■ 예산비교

[표 30] 태안군과 금산군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복지예산 비교(%)(2016년 기준)

시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예산 비율
금산군	19.83	64.62	22.43
태안군	19.58	66.56	18.99

- 태안군과 금산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19.58%, 19.83%으로 매우 유사함. 그러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금산군이 태안군보다 4%수준 정도 높아 23%까지 육박하고 있음

■ 사회복지인프라 비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표 31]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경로당 포함)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금산	344	14,847	23.16966
태안	252	16,623	15.15972

-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공급수준 태안군은 15.1 이고 금산군은 23.1임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미포함)

[표 32]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경로당 미포함)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미포함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금산	21	14,847	1.414427
태안	22	16,623	1.323467

- 경로당을 포함하지 않은 수 노인복지공급수준 태안군 1.32, 금산군 1.41임

- 아동복지시설

[표 33] 아동복지시설수준 공급수준

시군별	아동복지시설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금산	19	7,788	2.43965
태안	10	8,516	1.17426

- 아동복지 공급수준은 태안군 1.17, 금산군 2.43임

- 장애인복지시설

[표 34] 장애인복지시설 공급수준

시군별	장애인복지시설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금산	8	4,598	1.739886
태안	5	4,829	1.035411

- 장애인복지시설 공급수준은 태안군이 1.03 금산군이 1.73임

• 보육시설

[표 35] 보육시설 공급수준

시군별	보육시설	대상인구수	공급수준
금산	34	1,918	17.72679
태안	50	2,297	21.76752

- 보육시설 공급수준은 태안이 21.7, 금산군이 17.7임

- 보육시설을 제외한 노인, 아동, 장애인 분야에서 태안군의 사회복지시설 공급수준이 금산군 보다 수치가 낮음. 이 같은 결과는 두 군이 재정자립도는 유사하지만 사회복지 예산 비율의 편차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태안군과 금산군의 사회복지 인력 현황(군청)

- 태안군청의 사회복지 인력 현황은 2017년 5월 1일 기준, 복지정책팀 5명, 통합조사관리팀 5명, 행복키움지원팀 5명, 경로복지팀 5명, 장애인재활팀 3명, 여성가족팀 4명, 청소년 아동팀 3명으로 7개팀 31명임
- 태안군청 복지인력 조직 : 7개팀 3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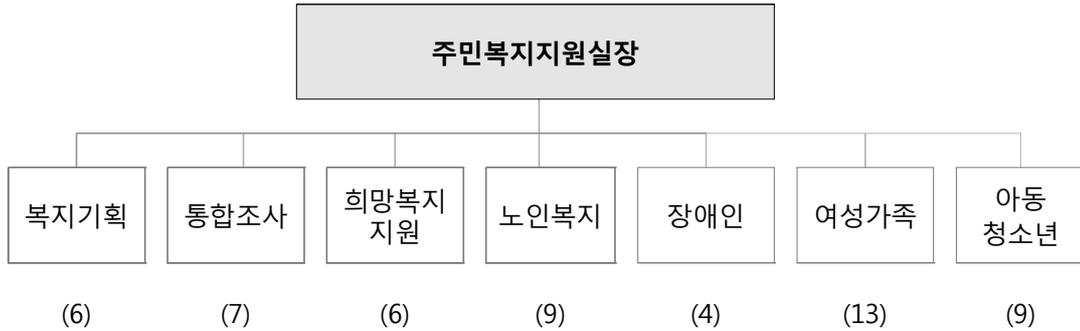
[그림 7] 태안군청 사회복지팀 조직도



출처 : 태안군청 내부자료

- 금산군청의 사회복지 인력 현황은 (2017년 12월 현재), 주민복지실장 체제 하에 복지기획팀 6명, 희망복지지원팀 6명, 통합조사팀 7명, 노인복지팀 9명, 아동청소년팀 9명(4명의 아동통합전문요원 및 1명의 사회복지사 미포함), 장애인팀 4명, 여성가족팀 13명, 으로 7개팀 54명임
- 금산군청 복지인력 조직 : 7개팀 54명

[그림 8] 금산군청 복지인력 조직도



출처 : 금산군청 인터넷자료

- 태안군과 금산군은 군청의 팀 구성에 있어 7개팀으로 동일함. 그러나 금산군이 노인영역에 있어서는 6명, 여성가족영역에서는 9명, 아동 청소년영역에서는 6명씩, 인력측면에서 우위에 있음
- 인구수는 금산군이 적지만 종합적으로 군청의 사회복지 인력은 무려 23명이나 더 많음. 이 같은 결과는 태안군의 사회복지 인력이 유사한 다른 시군보다 명백히 열세인 것을 알 수 있음

### ■ 비교의 결론

- 태안군과 금산군은 인구와 예산규모는 유사하지만 사회복지인프라, 인력 등의 복지환경 측면에서는 편차가 존재함
  - 특히 태안군과 금산군의 비교에서 군청의 복지인력은 무려 23명이나 차이가 나서 다른 요소보다 편차가 심함
  - 사회복지 인프라 측면에서도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영역에서 금산군이 우위를 보이고 있음. 다른 분야보다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공급수준에서 8포인트 정도의 편차가 존재함(태안군 15.1, 금산군 23.1)
- 태안군과 금산군의 복지수준 격차는, 서천군과 마찬가지로 먼저 예산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음
  - 금산군이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태안군과 유사하지만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거의 23%수준까지 이르고 있음. 금산군은 2010년 16.4%, 2012년 18.2%, 2013년 19.9%, 2016년 22.43%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태안군이 금산군과의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서천군과의 비교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20%이상으로 확대하고 군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는 것임

## 제5장 질적연구 분석

1. 질적연구의 필요성
  2. 질적조사 및 분석 방법
  3. 질적분석결과
  4. 질적연구분석결과 소결
-



## 1. 질적연구의 필요성

### ■ 지역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두

-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현장에서의 불합리성에 대한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경험은 많은 제도적 변화를 요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는 정책 수립과 운영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음
-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가에 대비해서 태안의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성·안정성을 위해 어떤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음
  - 때문에 지역 사회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실무자를 비롯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경험, 인식 및 태도 그리고 반응(reaction)을 통해서 태안군의 현재 사회복지서비스가 갖고 있는 문제의 소비를 혹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
- 이러한 점에서 본 영역에 대한 것은 질적연구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각 지방정부의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위한 복지수준 실태를 보는 질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양적 연구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 간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나 행동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사회복지 수혜자를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여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정책 모색에 한계
-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정책 연구가 아닌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다양한 주체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함
  -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를 단일범주로 획일화하여 보기보다는 각 대상마다 사회적 가치의 수용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범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주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에 태안군의 현 복지정책 및 서비스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질적 분석을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 서비스 공급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태

안군청, 태안읍행정복지센터, 고남면사무소,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협의회, 다사랑어린이집,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함. 또한 서비스 수요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인, 아동, 장애인, 보육학부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 2. 질적조사 및 분석 방법

### ■ 조사방법

- 본 연구는 태안지역의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태안군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서 태안지역의 지역복지정책의 현실에 대한 이해에 기초할 필요가 있음. 즉 태안지역이 복지정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안의 지역복지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향후 태안군 지역복지정책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봄. 이러한 직접적인 지역의 이해관계자의 경험과 인식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
- 질적연구방법의 장점은 연구주제에 대한 기존의 이론이나 개념의 틀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을 통한 이해가 가능하다는데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질적방법론 중에서도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 인터뷰는 태안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인터뷰와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공서비스제공자 11명, 민간서비스제공자 7명, 서비스이용자 9명 총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심층인터뷰 참여자 모두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개요를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음. 또한 연구진은 인터뷰 철회요청 가능성, 녹취할 것과 가필 수정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았음
- 인터뷰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은 첫째 태안군의 지역고유의 특색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 둘째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단체장의 복지마인드와 복지인력의 전문성, 셋째 태안군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현실적 어려움, 넷째 이해관계자로서 태안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발전적 제언으로 구성

- 인터뷰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로 소요. 통상의 질적연구에서의 심층인터뷰 소요시간보다 매우 적게 소요가 되었음. 왜냐하면 태안군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임. 인터뷰 참여자들은 태안 지역복지제도의 이해부분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보다는 제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향후 개선에서의 필요성 정도로 그치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실태에 대한 연구결과가 현실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느껴졌음
- 이번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내용분석을 기초로 피면접자들의 면접 반응에서의 공통된 주제를 발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공통된 주제가 나타나면 범주(category), 주제(themes) 별로 나누어 코드 북에 기록함.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에 대한 인적사항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6]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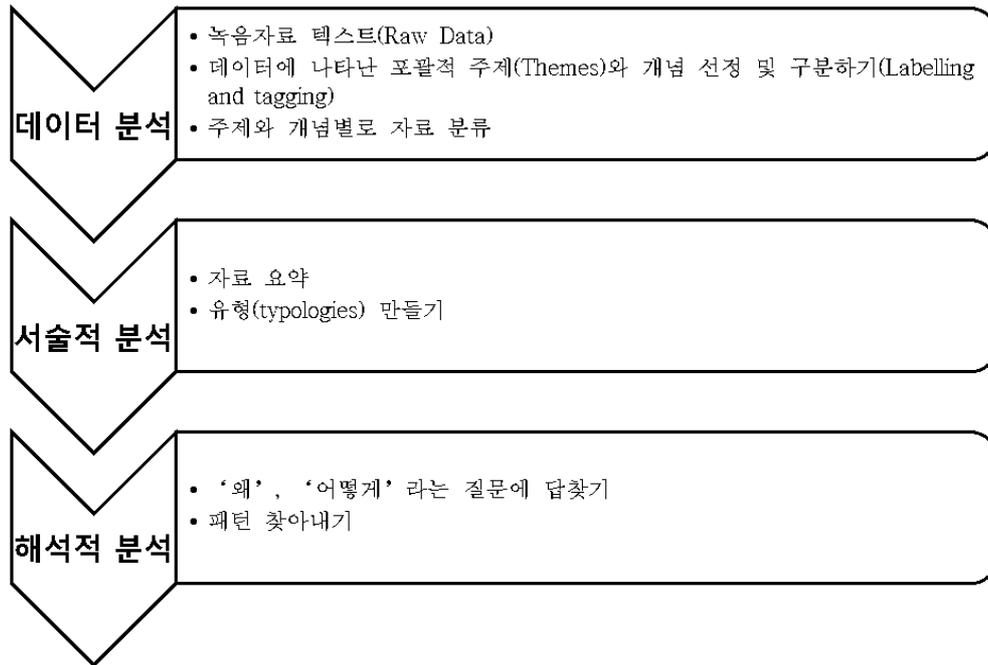
그룹	번호	분야	인터뷰 일시
1그룹 (공공 복지서비스 제공자)	A	지역복지	8월 23일
	B	전달체계 생활보장	8월 23일
	C	저소득층	8월 23일
	D	의료복지	8월 23일
	E	노인복지	8월 23일
	F	주거정책	8월 23일
	G	장애인복지	8월 28일
	H	맞춤형복지	8월 24일
	I	건강보험	8월 24일
	J	지역복지	8월 24일
	K	지역복지	8월 31일
2그룹 (민간 복지서비스 제공자)	L	사회복지협의회	8월 23일
	M	자활센터	8월 23일
	N	장애인복지	8월 28일
	O	장애인복지	8월 28일
	P	유아·아동복지	8월 31일
	Q	다문화복지	8월 31일
	Z	노인복지관	9월 20일

그룹	번호	분야	인터뷰 일시
3그룹 (복지서비스 이용자)	R	장애인복지	8월 24일
	S	노인복지	8월 31일
	T	노인복지	8월 31일
	U	노인복지	8월 31일
	V	청소년복지	8월 31일
	W	청소년복지	8월 31일
	X	청소년복지	8월 31일
	Y	유아·아동복지	8월 31일
	Z1	노인복지관	9월 20일
	공공서비스제공자: 11명 민간서비스제공자: 7명 서비스이용자: 9명 총: 27명		

## ■ 분석방법

- 수집된 녹음자료를 텍스트로 필사하여 이를 원자료로 사용함. 자료의 분석은 질적내용분석(approache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통해서 이뤄졌음
  - 즉 텍스트에 길어로 들어나는(explicit) 사용된 주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핵심 사고와 개념을 구분함.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인터뷰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연구질문에 따라 핵심내용을 추출하고 추출된 내용들을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했음. 이후 구분된 사고와 개념을 서로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카테고리 작업화함
- 하지만 본 연구는 태안지역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이러한 분석범주는 태안군의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애로사항 그리고 정책의 개선을 위한 발전적 제언 등에 대해서도 분류하여 관련 내용을 제시함

[그림 9] 질적연구 분석 체계



### 3. 질적분석결과

#### ■ 태안군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가

- 태안군 사회복지실무자들은 다양한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령화를 대비하여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분야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 특히 노인복지에 치우쳐있다는 평가가 지배적. 그리고 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복지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D: 복지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었고, 이제는 그런 기관들이 생기고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었죠. 초창기에는 사실 많이 열악했죠. 현재는 개선의 요구도 많이 있고,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져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업무에 대비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업무 부담과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죠.

B: 복지 쪽에서는 거의 노인 한 분야만 치중이 되고 있어요. 노인들 표가 많으니까요. 여성, 아동, 영유아 이쪽 부분이 아직까지 굉장히 열악해요.

L: 태안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노인복지 쪽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투자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하는 부분이죠. 부족한 부분은 아동복지 쪽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태안에 아동복지센터 9개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요. 그러다 보면 항상 나오는 목소리들이 왜 노인복지와 아동복지가 다르냐하고 비교가 나오죠. 그런데 사실 군에서 예산분배 속에서도 보면 형평성이 차이가 나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일부 현장전문가와 관주도의 계획과 주요 사업을 개발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에는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즉 사회복지를 후원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보니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같은 인력의 수급에도 어려움이 존재함

E: 관 중심으로 사회복지 거버넌스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기부가 하나도 없어요. 기업이 없으니 주체도 없고요.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시군과 달라요. 다른 시군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기부를 꽤 하시는데 여기는 없어요. 자원봉사자도 부족하고 유일하게 있는 건 화력발전소 하나뿐이니까 여러 단체에서 기부를 원하는 상황이라 화력발전소도 더 이상 여력이 없어요.

- 태안군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큼. 이로 인해서 서비스가 잘 닿지 않는 지역이 발생함으로 인해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또한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 결과적으로 태안의 경우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한 서비스 수급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함

D: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고남면에만 가도 거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생계유지죠.

F: 아무래도 태안읍이 중심이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서비스가 태안읍에 그리고 수급자도, 대상자도 태안읍에 가장 몰려 있고, 태안읍 시내권 중심으로 대부분 돌아가거든요.

I: 수지가 안 맞죠. 사실은 제일 가까운 거리에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구 구조가 되게끔 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복지관 운영 잘 하시는 분한테 얘기해서 여기 분원 하나 내라 했거든요. 경로당 근처에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시는 게 어떡냐 해도 자기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사회복지 관련 유능한 인력을 필요에 맞게 공급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 사회복지 관련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는 공공이 그나마 처우와 신분의 안정성 때문에 비교적 괜찮다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유능한 인력을 공급 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왜냐하면 대체인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을 받은 출산휴가나 연차 조차도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어려움.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의지를 갖고 일을 하더라도 과도한 노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

A: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자주 교체가 되는데 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도비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요. 군청에서도 통합사례관리사를 뽑으려고 해도 몇 번 공고를 내야 하는 정도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거나 전문적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F: 인력난이 계속되고 읍면동에서는 위에서 원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문성 같은 부분은 솔직히 제가 일을 하면서 보면 일을 못하는 직원들은 없었어요. 공무원들은 조직 내에서 자기 역할들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나 변아웃은 있어요. 업무가 과부하 되는 것도 있고, 업무를 추진하거나 하는데 따른 보상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느끼는 걸 수 있지만 사기저하가 발생하죠. 거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일하는 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 태안군은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활용 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사들이 민간자원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F: 도시 같은 경우는 손 별릴 데가 많잖아요. 대상자를 위해서 무언가 끌어들이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은데 여기는 한정적이죠.

-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긴 하지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 단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관협력사업과 같은 것들이 잘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F: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협의체에 대해서 몰라요. 전 업무를 해봤으니까 아는 거고. 본인 업무도 아니고 왜 그렇게 협력이 돼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협의체가 좀 잘 굴러가게만 지워해줘도 어느 정도 조율은 가능 할 것 같거든요.*

- 공공부분 혹은 민간부분 사회복지전문인력들은 자신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력부족으로 인해 교육을 받기 위해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다고 함

*C: 여기에서 있는 교육은 없다고 봐야죠. 교육이 의무가 아니라 서요. 진짜 급하지 않으면 자리를 못 비워서 안 해요*

- 태안군의 지역사회복지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는 것에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동의를 하는 했지만 태안지역의 사회복지 연계자원의 부재, 공공부분이든 민간부분이든 사회복지서비스인력 부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서비스 지원의 어려움 등 현재 시급히 처리를 해야 할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고 문제를 지적함

## ■ 태안군 지역복지정책의 주관적 변수 평가

- 단체장의 복지마인드
  -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도달함. 한편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권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임. 그렇기에 복지정책은 이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이들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함. 특히 단체장의 마인드가 어떠한에 따라 그 지역의 복지정책 또한 달라짐. 때문에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현 태안의 단체장은 행정전문가이지만 군을 운영해나가면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운데 점차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L: 군수님이 취임하신지 3년 되셨잖아요. 처음하고는 마인드가 상당히 바뀌셨죠. 원래 행정전문가이시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완벽하신데 복지적으로는 처음에 부족하셨는데 이제는 많이 열리셨어요. 이제는 먼저 물어보세요. 뭐가 부족하냐며 이런 정도가 되셨죠

- 한편 태안군의 단체장의 복지마인드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대체로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많았음. 이러한 지자체장의 어려움은 지역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존재함

F: 군수님의 의지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일단 정부에서 내려준 시책이야 지자체에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 외에는 하려고 하거나 하는 건 없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참전 대상자나 노인 쪽은 선거 투표권이 있으니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동이나 출산 이런 부분은 열악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어차피 군수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군수님) 관심이 있는 쪽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죠. 이쪽에서 아무리 해봤자 위에서 재정이나 이런 게 잘리니까 밑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시잖아요.

- 태안군의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다양화되고 증가함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 인원확충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이는 지자체의 인력충원에 있어서 단체장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C: 전 현 군수님이 어느 정도 관심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적극적이지는 않고 보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중앙에서 배치를 해도 추가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하시니 안 뽑지 않나 싶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힘들지만 다들 그냥 원래 그랬거니해요. 이러다보니 발전이 늦는 것 같아요.

- 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이들에 대한 처우

- 태안군의 복지인력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함. 전문성 뿐만 아니라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태안의 공무원들은 업무 외 시간에 자발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서로에게 조언을 하거나 서로를 위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향후 태안의 사회복지발전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함

F: 태안복지에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저희 담당자들이 의식있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끼리 모임도 자주 갖고요. 연찬회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한달에 한번씩 보여서 이런저런 행사를 계획하고 하는데, 업무연찬도 있지만 우리끼리 소통하는 장인거죠. 뭉 밥 먹고, 술 먹으면서 업무 이야기도 하고, 조연도 얻고 해요. 저희가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 행정자치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읍, 면, 동, 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도록 직렬을 조정하는 조치를 했음.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현실적인 대안과 세심한 복지서비스가 가능하길 기대했던 것임.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직렬이 단순히 관련 교육만 받고 복지부서의 장이 되고 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복지직 공무원들은 행정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승진에 있어서 행정적 직원들과 비교해서 승진기회가 적다고 느낀다고 함

E: 계속 행정직을 하다가 갑자기 복지직으로 오게 되는 경우는 업무를 하나도 모르죠. 위에서 봤을 때는 행정직이 주요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무를 해도 승진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사기저하가 돼요. 똑같은 8급이어도 6급을 달적에 인사점수가 많이 좌우를 하는데 복지과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 친구와 인반 행정업무를 하는 친구와 인사점수가 10점 이상 차이가 나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탈출하고 싶고 그래야 장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은 일대로 힘들더라도 보니 이 직장을 피하는 것 같아요.

- 최근 복지사각지대 축소와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에 가장 중요한 곳인 읍·면·동사무소라고 할 수 있음. 이제 태안도 읍·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인력이나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

F: 지금은 찾아가는 복지로 읍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군에 물려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배치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 태안군에는 관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현장복지서비스에서 점차 증가하고 중요해지고 있음. 하지만 통합관리사들의 업무 특성상 가시적으로 업무효과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 만족도가 높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 게다가 통합사례관리라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얼마나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음. 또한 이러한 평가 때문에 실질적인 사례관리업무 보다는 평가를 위한 업무를 보는 문제점을 지적

H: 사례관련 업무라는 말 자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오십이예요. 예를 들어 스무 살에 결혼을 해서 애 하나있는데 이혼을 하고 나왔어. 그런데 내가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100~150만원씩 일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오십이 되도록 내가 애를 키우느라고 전셋집 하나를 못 만들어 냈어. 그런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시키래요. 요즘은 변화라는 말 자체를 요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젠 어디 강의만 들어도 너를 변화시켜라, 너의 나쁜 습관을 뜯어 고쳐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습관이 오래 벤 채로 생활 한 사람들을 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상담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90프로 이상이 사례관리만 하다가 종결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서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알게 모르게 훈련을 받으면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 명절에 쌀 포대가 1000개가 들어왔어, 그걸 나르는 건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한 단 말이야? 1000개가 있던 게 0개가 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느끼면서 하는데, 사례관리라는 업무는 눈에 보여 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례관리가 힘들어요. 근데 사례관리 그거를 또 실적을 평가해요. 그런데 그걸 평가가 가능해요? 그거를 평가 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수 미흡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에 미쳐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 내부적으로 전문인력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전문인력 수급이 중요함. 하지만 농어촌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전문인력 수급이 잘 이뤄지고 있지 못한 문제가 발생

L: 태안은 인력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고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역형편상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예요. 빨리 고인력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 한편 태안지역의 민간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의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에 들어가고 사업비가 부족한 어려움이 존재. 특히 직원들이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서 인건비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 한편 민간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인력들의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태안군 차원에서의 재정적인 부담 증대는 향후 태안의 복지서비스 발전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큼

M: 자활센터는 기본형으로 농어촌형이면 1억 9천 5백 정도를 운영비로 받아요. 국비, 지방비해서 7대 3으로 받는데 99%가 인건비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여비, 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일체 없고, 매년 직원 호봉 올라가는 거에 마음 줄이

고 있어야 되고, 협회비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작년부터 미납이고...작년 같은 경우도 여비가 없었어요. 그럼 여비 안받고 갔다 오는 거예요. 저희는 기본 책정되어 있는 것만 받아도 좋겠다. 생각해요. 아무튼 운영비가 제일 큰 문제예요.

D: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임금은 기준이 있어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보충해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시군에서도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점점 복지관이나 시설들이 오래 운영이 되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도 올라가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측정해서 지원을 하는 게 힘들 거예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오래 됐죠. 거기도 이제 시군의 부담이 엄청 큰 거죠. 시설 하나를 설립할 때도 돈이 엄청 들지만 설비나 운영비가 들어가고 직원 인건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물론 낱이 발전하고 다양화되는 복지수요에 따라서 개선하고 필요하면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반해서 시군의 부담이 크죠.

- 지역복지거버넌스(주민의 자발적 참여)

- 태안군의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참여도 저조함
- 지역의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만 뚜렷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게다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간사는 수시로 바뀌거나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민과 관 사이에서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F: 협의제도 있고 하지만 잘 소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있을 건 다 있는데 중심 축을 잡기가 어렵다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협의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으쌰으쌰해 가지고 뭔가 될 것처럼 했었는데. 지금 5년 넘게 지났는데도 전혀 변화된 게 없거든요. 공동위원장님도 민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게 있으시니까 회의 참석하고 이런 정도 말 그대로 결재하시는 그런 거에 치우쳐 계시거든요. 주축이 되려면 간사 같은 실무자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하는데 권한이 전혀 없고 뒤통수만 하는 사람 밖에 안 되잖아요. 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민관의 소통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목적이구요 근데 협의체에서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관에서는 지시 받고, 민간한테는 부탁을 해야 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로 되어있어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안돼요. 기능 강화를 못하고 그냥 굴러만 가는 거예요.

- 지역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력들이 장기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참여자들의 자주 바뀌는 문제가 있음. 한편 지역 사무국에 인력이 부족해서 실무와 거버넌스 구축 두 가지를 병행하기 어려움

C: 복지 거버넌스가 태안이 부족한데 왜냐하면 강사님들도 자주 바뀌고, 활성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사무국 형태로 국장님도 계신데 저희는 한 분이서 일하시니까 벅차죠.

- 태안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가 주로 태안읍 중심으로 구축이 됨으로써 다른 지역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

E: 아무래도 태안은 면적이 길다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지역특성을 살리자면 구간별로 나눠서 운영을 해야 맞는데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 시내권인 태안읍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 ■ 사회복지분야별 질적 평가

### • 영·유아 보육서비스

-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가 지적한 태안의 가장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의료 서비스를 언급. 특히 출산을 하려는 여성이나 어린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태안의 영·유아 의료기관 확보가 꼭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특히 자라는 어린이들의 경우 외과적인 치료가 받을 가능성이 높는데 현재는 천안과 같은 큰 도시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존재

Y: 태안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갖는 애로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소아과나 병원 이런 인프라가 없으니까 불편하죠. 의료원이나 이런 게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외부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애들이 찢어졌다 하면 응급실 의사 중에서 성형외과는 천안까지 가야 하니까요. 놀다가 다쳤을 경우에 흉 안 지게 하려면 천안까지 가야해요.

- 영·유아보육시설의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비교적 양호한 편. 하지만 이러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큼. 특히 민간 영·유아시설의 경우는 더욱 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움. 한편 대체교사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함

P: 교사들 처우는 좋아요. 교사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처우라도 잘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장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 자체에서 축정을 해서 잡아요. 직원들 복리후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체인력만 제일 시급하기는 해요. 더 지체를 하면 현재 교사들 처우마저도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작 여기로 오는 선생님들은 여기에 집이 있는 분들이거나 결혼을 해서 오시는 분들 외에는 많이 없는 편이에요. 저희는 그래도 국공립이니까 나아요. 저

회는 지원하는 교사들도 있고 하는데, 다른 원장님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 교사를 한 명 뽑으려면 이력서 중에서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한 명 지원해서 한 명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수준의 교사를 모실 수도 없고요. 그리고 대체교사제도가 있어요.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을 내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체교사가 없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대체교사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교육 받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 보육의 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아쉽죠. 여유 인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요.

- 한편 영·유아보육시설의 추가적인 건립도 중요하지만, 태안에서는 공공보육 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 이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현재 민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을 강조

P: 아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동 수 대비 어린이집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린이집 정원에 충족된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 미달이에요. 그런데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갈 곳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곧 내가 보내고 싶은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안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는 어린이집 확충을 강조하는데 태안은 어린이집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이 수가 부족해서 국공립을 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린이집 수가 아니라 어린이집 퀄리티의 문제인거죠. 얼마나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지가 문제죠. 이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장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영·유아들의 다양한 교육적인 체험을 위해서 태안의 다양한 기관들의 연계 구축 필요

P: 어린이집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급식관리센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서산, 당진, 태안 지역 시설을 보면 급식관리센터가 굉장히 연계가 잘 되어 있어요. 아동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하는 체험이라든가 다양해요. 태안도 최근 생겼다고 하는데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험교육이 잘 안 이뤄지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녀도 문화적인 교육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원장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를 많이 해야 하는데 막상 하려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 여성복지서비스

- 태안은 대도시와 달리 이웃이 인접해서 많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젊은 엄

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서 이웃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움이 큼. 때문에 공공서비스인 아이돌봄지원이 중요하긴 함. 태안도 최근 아이돌봄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 크게 부담으로 작용

*P: 태안군에서는 도와주는 사람도, 제도도 그리고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엄마들도 부족해요. 그리고 시간제보육도 올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서비스 자체도 열약하고,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시간당 15,000원씩 부르고.*

- 노인복지서비스

- 태안군의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가장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 받는 서비스가 바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임
- 태안군의 노인들은 (행복)경로당을 중심으로 여가생활을 향유함

*T: 여긴 독거노인이라도 혼자 있다거나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여긴 시골이다 보니까. 행복경로당에 프로그램 많죠. 노래 강사님도 오시고, 또 뭐 치매 방지는 그저 꽃도 접고 하는 거 하고. 강사님 세 분이 와요. 일주일에 세 번 와요.*

*U: 그냥 살죠. 나도 등허리 수술해서 일을 못하는데 아픈 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그냥 경로당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 하지만 노인성질환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일이 많은데 의료시설이 태안읍에 집중되어 있어 타 읍면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움

*S: 병원 가는 게 제일 불편하죠. 그게 제일 걱정이요.*

-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노인들의 경우 대중교통을 기다리며 설 수 있는 시설 부족

*S: 다른데 가봤는데 노인네들이 시내에 버스 앉아서 기다릴 데도 없고. 그래도 우리 고남면은 앉아서 기다릴 데는 있으니까.*

- 태안군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 필요

*L: 태안 같은 경우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어촌이니까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거의 독거노인들이 많습시다. 또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군에서도 그렇고, 민간기관 쪽에서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죠.

-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N: 시설 이용 분들 발굴할 때에도 애로사항이 많고요. 접근성이라든지... 시설이 지역 사회 안에 위치하고 있어도, 셔틀차량을 운행해 해도, 운행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태안은 지리적 문제 때문에 이쪽 남부권으로는 안면 이전으로 운행하면 왕복 2시간 정도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고남 쪽이 애로가 있고요. 장애인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도, 장애 아동 양육하는 분들의 주된 욕구도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접근성 문제라든지 많이 말씀하시고요.*

-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한 요양 보호사 부족. 태안의 요양 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이 이들이 비교적 노동의 강도가 약한 노인 대상 요양보호서비스에 몰려 상대적으로 장애인 활동서비스에는 인력부족이 발생

*I: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는 사업체가 태안에 두 개밖에 안돼요. 근데 웃긴 건 그게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요양 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어차피 사람은 똑같아요. 요양 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장애인 활동 보조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에 요양 보호사를 확보를 많이 못하거니와 행정적인 부분도 많이 미흡하기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장애인 활동보조를 받는데 오는 사람이 없더라, 구해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표가 신체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 시각장애인은 거동이 된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에 대한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O: 시각장애인분들이 제일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활동 보조인을 이용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인증표가 있잖아요. 그 인증표가 지체에 와서 환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분들과 맞지가 않아요.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은 옆에 보조인이 있어야 밥상을 차려봐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된장인*

지, 고추장인지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보조를 해서 먹고 알려줘야 하는데, 시각장애인에 맞는 인증표가 없어요.

• 청소년복지서비스

- 태안지역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이 부족

V: 영화관이나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냥 피시방에나 가고 해요.

W: 영화관이 서산에 있으니까 영화는 서산으로 많이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는 것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딱히 서산에도 놀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아이들을 대응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 이들에 대해서 인성교육이 필요함을 지적

X: 태안에 드림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냥 지역센터도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아이들에게 말도 그러시고 행동도 그러시고, 아동복지를 위해서 그런 분들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준이나 뽑는 걸 강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더 나아가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가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공립학교 보다 더 부족하다고 함. 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요청이 필요

X: 학교에 홍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랑 좀 연결 시켜서 학교선생님들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제가 여기를 알게 된 것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된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약간 군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현재 있는 청소년 시설은 비교적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 그나마 태안읍에 위치를 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

W: 여기 위치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신청 했을 때는 오긴 오는데. 여기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V: 태안읍이 아니면 같은 태안군민이라도 수련관 이용이 어려워요. 전 금은면 쪽에서 살았는데 그 때는 자주 못 왔었어요.

X: 청소년 수련관은 이용하는 사람만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위치적으로 외져 있다 보니까요. 전 부모님 차를 타고 와요.

• 다문화가정복지서비스

- 태안의 경우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 이주노동자가 꾸준히 증가.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없는 가운데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교육을 받더라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 한편 민간에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해도 이에 대한 행정지원 서비스 부재

Q: 결혼이주여성이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요. 취업 관련 서비스교육을 받아서 취업은 힘들더라구요. 식당밖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제가 보물섬이라는 다문화식당이 있는데 추천을 하기도 했었어요. 보물섬 식당은 작년 9월 달에 지정 받고 인증을 받아서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주여성을 움직이겠다고 시작을 한 거여서 이번에 서류도 땀어요. 사실 저는 군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로 하면 문제가 되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조언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보물섬에서 외국인들을 시간제로 쓰는데, 어차피 다른 곳 취직 못하는 사람들을 썼어요. 우울증 걸릴까봐. 그리고 가정에도 영향을 안 주려고. 무언가를 하려 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 많아요.

• 보건의료복지서비스

- 태안군에 보건의료원이 있지만 전문성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sup>3)</sup>낮음.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부재로 인해 대부분의 군민들이 가까운 서산시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갖고 있음<sup>4)</sup>

L: 저출산 문제에 있어 태안이 특히 더 심각하죠. 태안이 의료기관인 산부인과가 전혀 없잖아요. 있다가 없어졌는데 아마도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겠죠.

P: 개원을 하기에 수지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의료수준이 맞지가 않는 거죠. 어머님들을 충족 시켜줄 수가 없는 거죠.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해보신 분들에 의해서 금방 소문이 나거든요. 의사가 너무 전문적이지 못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꾸 서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면 2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평일이라 그래요. 주말은 더 하겠죠. 지금 소아과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도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더라고요.

3)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호스피스 병동을 충남 최초로 유치하는 등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나 아직 이런 노력에 대한 홍보가 군민에게 덜 되고 있음

4) 태안군 의료기관 수는 33개소로 유형별로 분류하면 요양병원 2개소, 병원 1개소, 내과 5개소, 정형외과 2개소, 외과 2개소, 신경외과 1개소, 소아과 1개소, 안과 1개소, 비뇨기관 1개소, 이비인후과 1개소, 마취통증의학과 1개소, 의원(일반) 15개소임

- 맞춤형복지팀 방문간호사에 대한 반응이 좋고, 더 필요하지만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

B: 방문간호사는 태안은 1곳, 안면은 2곳 배치가 되었어요. 방문간호사님이 오시고 나서는 아무래도 효과가 좋은데, 인력이 부족해요. 전문지식으로 접해주시니 반응이 좋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간호사님이 기간제이시고, 권한 자체가 있지가 않아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돼요. 태안군의 맞춤형 복지팀 담당자는 한 명 밖에 없는데 일이 벅찰 수밖에 없어요.

-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 노인들의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시설이나 전문가 부재. 한편 정신보건과 관련한 의료시설 부재

B: 태안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알콜릭과 관련된 사례가 많은데 이를 다루는 전문적인 병원이 없습니다. 정신보건센터만 있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서산에 가서나 서산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홍성이나 아산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 저소득층복지서비스

- 자활센터의 경우 태안지역의 산업인프라가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미비
- 농어촌지역의 특성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노동을 하려는 지역주민들의 동기 부여 미약. 게다가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고령이라 산재위험에 노출이 높음

C: 태안 자활 계층은 주로 50-60대예요. 태안은 자활이 더욱 더 안돼요. 다른 곳과 달리 선생님이 파견오시기도 힘들어서요. 근무하시던 분들도 그만두셔서 인원 충원이 안돼요. 왜냐하면 출퇴근이 어려워서요.

J: 내가 3만 원씩 받아서 20일 일하느니 10만 원씩 받아서 3일 일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일단은 지역자활센터에 그런 개발이라든지 발굴하는 사업 발굴이나 그런 부분들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M: 참여주민은 적지만 일은 고령으로 일은 그만큼 가중이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단은 자기들끼리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나 행정 지원이라든지 사례 조금만 봐주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여자 수로 단순 산술적 비교를 하면 안 되죠. 태안은 길잖아요. 인구가 6만 5천이 된다 해도 바닷가 쪽은 안 오세요. 멀리도 하고 급여도 적잖아요. 그분들은 바닷가 가서 바지락 조금만 캐도 하루에 10만원인데, 자활 일당은 3만 원 정도니까 안 오시려고 하고, 결국 태안

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상자들이예요. 또 그분들이 요새 정신적으로 혹은 알코올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사업단이 협심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수급자들이 힘들고, 저희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사고예요.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해요. 청소하다가 넘어지셔서 산재처리, 간병하시다가도 산재처리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또 고령이신 데다가 덩치가 크신 분들이 넘어지면 똑같이 넘어져도 크게 다치잖아요.

## ■ 태안군 지역복지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와 제언

### • 단체장의 복지마인드

- 현대 사회는 복지다원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복지체계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 비정부적, 비물질적 차원의 복지체계가 복지욕구 충족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자체장은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복지를 바라보고 이해하기 보다는 혹은 예산증가를 통한 복지향상을 피하기 보다는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와 마인드 그리고 능력이 중요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 가운데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단순히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함께 구축이 되는 것에 좀 더 주목하는 것이 필요함

D: 저희가 개선을 바라고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좀 발전해 나가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설봉사자들과 또 플러스 알파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어떤 기반이 되고 어떤 전문성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나 여건이 구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 사람들이 이걸 필요해? 그럼 빨리 그거 해야지, 하고 또 하나 만들고 사업 만들고, 만들고 해서 과중한 업무를 더 주는 케이스가 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얘기에요. 그 업무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 기반, 조직 이런 게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여기에 어필이 많이 됐으면 해요.

### • 복지인력의 전문성

-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서비스는 늘어가고 있음. 이에 대한 태안의 복지인력의 전문성의 문제는 거의 없어 보임. 하지만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충원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최근 ‘찾아가는 서비스(맞춤형복지팀)’를 운영함에 따라 인력충원은 더욱 절실해짐

C: 저도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슈가 되는게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이를 위한 인력충원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위치에 등용시키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음. 현재 많은 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켜 지역의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의 ‘복지동장’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를 통해서 작은 지역단위에서 복지행정을 책임성 있게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한편 태안은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필요해 보임

*E: 7급까지는 사회복지직이라 행정직이라 구분을 두지 말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뭐 행정직도 이 업무를 보고, 사회복지도 이 업무를 보고 이렇게 교류가 되어야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자리에 왔을 때 이해하고, 복지를 하는 것도 복지직 팀장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사회복지교육 이수를 필수사항으로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사회복지에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의무로 사회복지 업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교육을 이수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를 뭐 2년 이상, 3년 이상 본 사람에 한해서 뭐 승진 후보자로 올려 주겠다 이런 것을 해야지 1년에 교육점수 몇 점 이수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뭐 대학교에 나오는 교과서인데 뭐 사실 업무 보면서 대학교에 나오는 정책론이라든지 사회복지개론 아무 연관이 없어요.*

*F: 저희는 실정을 아는데 외부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좀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내부조직에서는 행정직이나 윗분들 행정직이라 선이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행정직분들이 주민복지과로 발령 나면, 유배 왔다고 해요. 하여튼 벽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흔한 말로 너희들 고생한다 이런 말 자주 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시면서 립서비스를 하시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 영·유아 보육서비스

- 태안군의 가장 시급하게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확충과 민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설립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인력에 대한 충원이 어려운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표가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홍보와 운영 지원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존재. 특히 기초수급자 아동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에서의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홍보지원이 필요해 보임

- 여성복지서비스

- 태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태안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과 같이 여성이 일·가족양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설 설립이 필요함

*J: 복지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있으면 먼저 투자를 했어야죠. 우리군에 직장맘지원센터를 만든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인들은 밖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많이 없어요. 누가 지방으로 오겠어요.*

- 노인복지서비스

- 태안의 경우 다른 사회서비스 보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문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함
- 노인들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한 차량지원 서비스 혹은 태안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보건사업 차량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함
-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 특히 위생과 관련된 화장실 문제는 시급함

- 장애인복지서비스

- 발달장애 증가에 따른 주간보호센터 확충 필요

*N: 지금 현재 주관보호센터는 대기자가 4명이나 있고요, 아무래도 발달 장애인분들이 이제 증가되는 추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대기자 4명은 수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최소 1명이라도 인원 배치를 해서 내년엔 그렇게 꾸려가고 장기적으로는 주간보호센터의 설치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요도 파악도 해야 되는 거고 하세요.*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자료 혹은 도서관 확충. 이를 위해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다른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도서관과 연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O: 점자도서관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점자 학습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료 같은 것이 거의 별로 없어요.*

-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에 대한 요구에 맞춰 점차 직업재활기회의 확대해야 함. 이를 위해서 장애인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 특히 중·고등 학생의 장애아이가 제과제빵 혹은 컴퓨터교육 등의 수업 받을 수 있게 직·간접적인 교육지원 필요

R: 원래는 꿈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행정도우미를 하면서 약간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R: 저위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로 컴퓨터 배우러 갔다가 장애인 복지 쪽으로 일자리를 구하게 된 분도 있어요.

- 장애인복지관에 이용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함. 또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 처음 오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복지관에 적응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R: 저는 사실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관은 안 가려고 했었어요. 도청에서 지원했더니 차로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갔거든요. 처음엔 낯설기도 하고 어쩔 줄 몰랐는데 컴퓨터 가르치는 선생님과 친해지면서 하게 됐어요. 파워포인트랑 워드 자격증도 복지관에서 배우면서 따게 되었어요. 가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요.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께서 전화로 데리러 오셔서 일단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컴퓨터선생님이랑 친해진 게 도움이 되었어요.

- 다문화가정복지서비스

- 공공기관에서 이주민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창업지원을 통한 인력 활용 방안 구축

Q: 지역 축제인 톨립축제에서 일일자리 구할 때 충분히 외국인들을 쓸 수 있었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을 고용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어요.

#### 4. 질적연구분석결과 소결

- 태안은 노인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미비함
- 태안군 내에 복지자원 인프라가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존재함. 이에 따른 사회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점지역을 통한 서비스 거버넌스체제의 강화를 위해 복지 NGO나 지역의 자원봉사조직과의 연계를 형성이 필요함
-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태안군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의 기회나 서비스 질의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인력충원이 필요해 보임
- 이번 태안군의 사회복지에 대한 질적연구를 하면서 태안군의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들의 전문성과 자신들의 일에 대한 신념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단 인력에 비해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리고 이들의 역할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정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승진과 같은 보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임

[표 37] 태안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 평가 및 발전방안

분야	특징	발전방안
정책결정자의 복지마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높아짐</li> <li>• 의지와 관심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 과정에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외에 현장에서 있는 공공 혹은 민간 사회복지전문인력들과의 대화를 통한 향후 태안의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참조하는 것이 중요함</li> <li>•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li> </ul>

분야	특징	발전방안
복지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분의 복지인력의 역량과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음</li> <li>• 현재 공공부분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인력 간 자발전인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간 정교교환이 이뤄지고 있음</li> <li>•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함</li> <li>• '찾아가는 서비스'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군 중심의 인력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분에서 있는 인력들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함</li> <li>• 태안의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큼. 이에 민간에도 영리적이 측면에서 태안은 크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공급이 낮음.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인력 유입이 적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사회복지인력 충원이 중요</li> </ul>
주민참여와 지역복지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서비스는 행정서비스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태안의 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복지에 대한 인식이 저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간사의 처우와 권한 강화가 필요함</li> </ul>
영·유아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의료서비스 부족</li> <li>• 특히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외과 치료를 받기 어려움</li> <li>• 영·유아 보육시설은 현재도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음.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의 차이가 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사설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의 고용이 어렵고,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보육시설을 수적인 측면에서 증가시키기 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임으로써 좀 더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li> </ul>

분야	특징	발전방안
여성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인구가 많은 태안에서 자녀돌봄에 있어서 이웃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움</li> <li>• 여성진료 혹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영유아돌보미센터'의 설치와 확대가 필요함. 영유아돌보미센터를 통해서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한 정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또한 영유아돌보미센터를 통해서 신생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부터 장난감까지 대여를 하는 서비스도 강구될 필요가 있음</li> <li>• 아이돌봄에 필요한 공간은 현재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노인복지관 안에 설립을 하면 지리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판단됨</li> </ul>
노인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군의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가장 잘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li> <li>• 행복경로당을 중심으로 독거노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크게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행복경로당을 좀 더 확대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li>• 태안의 지리적 특성상 이동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따른 정거장 쉼터 설치가 필요</li> </ul>
장애인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태안군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장애인서비스라고 볼 수 있음</li> <li>• 태안읍에 설치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li> <li>•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서비스 인력 부족</li> <li>• 장애인들의 공공근로에 대한 참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독려와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근로 참여 확대</li> </ul>

분야	특징	발전방안
청소년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교육·문화시설 부족</li> <li>•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의 공공문화 시설에 대한 이용은 어느 지역이나 비교적 낮기 때문에 태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최근 여가활동의 특징이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태안군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수련관 혹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인해서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함</li> <li>• 지역의 사용하지 않는 공공지를 외부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제공하고 이들을 통해 태안군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의 교육의 장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한편 이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예술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음</li> </ul>
다문화가정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부족뿐만 아니라 질 또한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이뤄지고 있는 취업교육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우선적으로 공공부분에서 이주민인력을 수용하는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li> </ul>
의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간호사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 또한 방문간호사는 기간제로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이들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인구가 현재도 많고 향후 더 증가할 태안의 경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의료서비스를 직접 방문해서 받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함. 때문에 방문간호인력 충원을 위한 장기적인 처우와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li> <li>•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성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부재. 서비스기관이나 인력을 상시 설치하고 운영하기는 어렵더라도 정기적인 진찰을 할 수 있는 외부의 노인의료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li> </ul>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지역특성상 자활센터에 대한 경제적 참여동기가 미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이들이 주로 고령임을 감안해서 산재에 대한 교육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li> </ul>



## 제6장 우수복지정책지역 사례연구

1. 우수복지정책 사례연구와 태안군

---

2. 우수복지정책 사례

---

3. 향후 태안군 지역복지정책방향

---



## 1. 우수복지정책 사례연구와 태안군

### ■ 목적과 범위

- 본 연구는 지방자치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태안군의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실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그 성공사례를 분석
  - 지역복지정책의 성공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한편 지역복지정책 성공사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수한 것인가에 대한 규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연구진 협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우수정책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성공요인, 공통적 사항과 차별적 사항을 중심으로 우수사례의 함의를 제시
  - 비교지역은 가능한 태안군과 비슷한 농어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요 비교대상으로 선정했음. 하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도 태안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혹은 꼭 필요하다고 연구진이 협의를 한 경우에는 포함
-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지역복지서비스의 대상별 프로그램이므로 이에 추진배경, 사례개요, 성과 및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봄. 서비스 대상은 노인, 영·유아, 의료서비스,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편 사회복지 전문인력 관리와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우수사례도 살펴보고자 함

## 2. 우수복지정책 사례

### ■ 노인

- 논산 ‘동거동락’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공동체 모델로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운영
  - 시범경로당 19개소를 선정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 학교, 마을주민 건강증진센터(보건소) 사업 추진
- 무주군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
  - 무주군 내의 독거노인 수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7,541명 중 1,780명
  - 무주군은 군비 2천 2백여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청소와 소독 각 2회 씩 실시
  - 독거노인 홈 클리닝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대청소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질병 발생요인을 없애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에 기여
- 충남 보령시 ‘어르신 동거동락 생활방’
  - 2014년 12월초부터 보령지역 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 경로당 확대
  -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고 고독사를 예방
  -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위해 침구 등 생필품을 갖추고 함께 숙식

태안의 경우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잘 이뤄지고 있음. 특히 독거노인이 많은 태안의 경우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데 찾아가는 서비스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하지만 경로당 중심의 공동생활문화 형성을 통해서 ‘老老케어’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함. 이에 논산의 ‘동거동락’ 혹은 충남의 ‘어르신 동거동락 생활방’ 과 같은 정책을 현재 태안에서 운영 중인 행복경로당의 발전모델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함. 이 정책의 장점은 추가로 새로운 예산 편성이 크게 필요가 없음. 단 처음 공동주거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이 예상됨

- 충남 계룡시 ‘행복돌봄 이동빨래방’
  - 계룡시는 2015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석구석 찾아가는 행복돌봄 이동빨래방’ 서비스 시행
  - 이동빨래방 사업은 세탁에서 건조까지 가능한 드럼세탁기 4대가 탑재된 1.2톤 차량으로 개인이 집에서 빨기 어려운 이불·침구류 등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 시는 노인종합복지관과 마을별 이장들의 추천을 받아 매주 화, 목요일 정기적으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탁물 수거와 세탁, 건조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찾아가는 이동빨래 서비스는 계룡시 뿐만 아니라 진안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미 활성화된 서비스임. 태안군은 노인인구와 장애인들이 서비스 이용접근이 어려움이 큰데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동빨래방은 매우 유용해 보임

태안군은 노인인구와 장애인들이 서비스 이용접근이 어려움이 큰데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동빨래방은 매우 유용해 보임. 개인의 위생에 중요하지만 평소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침구류를 세탁부터 건조까지 해주는 서비스는 이미 타지역에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확인된 만큼 태안에서도 도입이 필요함. 이를 위한 운영예산은 연간 서비스 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우선 이동빨래서비스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대략 1억 5천 예상. 이외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 및 일용직 인건비와 공과금, 세제 등과 같은 소모품, 차량유지비, 사업비(홍보, 사례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타지역의 사례를 비추어 서비스 제공실적이 2,000건일 경우 대략 3,000만원 예상

- 충북 영동군 ‘경로당 전담 주치의’
  - 영동군은 2015년부터 경로당별 전담 주치의 제도를 시행. 2017년 66곳으로 확대 추진
  - 교통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자가 많은 경로당에 한 달 2차례씩 보건소 공중보건 의사가 출장 나가 건강을 보살펴주는 것
  - 군은 관내 공중보건의 20명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

## ■ 영·유아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의 복지증진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 센터 1층에는 놀이체험실, 도서 및 장난감 대여실, 맘스카페, 수유실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2층에는 요리체험실, 어린이 공방,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마련
  - 센터는 향후 어린이집 지원과 놀이체험실 운영,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계획을 수립
  
- 광주 광산구 ‘맘쓰리(three) 센터’
  - 주민센터를 활용해 공동육아방 조성
  - 각종 육아 프로그램 제공

태안의 경우 거점형태의 대형서비스기관 운영은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함이 존재함. 때문에 서비스 창구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광주의 맘쓰리 센터’는 태안에 도입을 고려 할 만한 정책임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광산구의 경우는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광산운동’으로 ‘광산형 마더박스’로 신생아 출산한 가정에 대한 육아용품 지원, 주민센터 옥상을 증축해서 ‘맘쓰리센터(322㎡) 설치, 돌봄·보육을 담당할 공익형 일자리 창출에 총 9억원의 예산을 편성

- 강원 삼척시 ‘SOS통통 센터’
  - 재래시장 내 상가건물 일부를 새단장해, 일자리지원 상담과 육아서비스 제공
  - 아이엄마 교육기회 제공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센터 설치
  
- 서울시 구로구 ‘국가필수예방백신 무료접종’
  - 구로는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인공면역력 획득 장치가 미비했던 것에 대해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의 지속적인 지자체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의무 실행요구를 수용

- 2011년부터 구로구관내 거주 해당 아동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의 지자체의 의무 실현 가능
- 경남 진주시 ‘장난감은행’
  -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고충을 해결해 주려고 2011년 6월 본청 2층에 장난감은행을 처음 설치
  - 2012년 8월 서부지역에 ‘무지개동산 장난감은행’, 2014년 4월 동부지역에 ‘은하수동산 장난감은행’, 2016년 3월 혁신도시 내 ‘충무공동 장난감은행’을 잇따라 확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권역별 장난감은행의 기반이 구축됨
  - 장난감은행은 연회비 2만 원 납부 후 회원 가입만 하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장난감을 무제한 대여
  - 전인교육의 놀이터 역할과 함께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 육아가정은 장난감은행에서 진행하는 놀이체험교실, 좋은부모자격증반, 육아사랑방, 숲체험, 나눔장터, 문화공연 등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등 시민 참여형 복지공간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태안에 꼭 필요한 정책. 단순히 장난감을 대여한다는 것 의미 이상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활용이 가능

김해시의 경우 ‘장난감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난감 구입비와 인건비 등등 연간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장난감 및 육아용품 대여는 유료로 이뤄지고 있으며 장난감은 2주, 육아용품은 4주간 대여가능. 이용료는 장난감은 500원-6,000원, 육아용품은 3,000원-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연회비가 면제되고, 다문화가정과 장애인은 연회비·대여료가 50% 감면. 연회비는 2만원 책정

## ■ 의료서비스

- 부산 사상구 ‘아동전문 보건지소’와 ‘아이·맘 원스톱 센터’
  - 부산 사상구는 영유아 건강에 관심이 높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임산부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맞춤형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거점으로 운영을 추진 중

- ‘아동전문 보건지소’ 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육아상담 등을 통한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예정
- ‘아이·맘 원스톱센터’ 는 맞춤형 보육정보제공을 위한 포털을 운영하고 각종 보육상담 및 정보공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

이번 연구에서 태안의 복지서비스에서 문제로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자녀가 갈 병원이 부족하다 것. 이에 태안에서 ‘아동전문 보건지소’ 를 운영함으로써 예방접종 및 소아과진료 및 보육상담까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전문 보건지소’ 의 설립이 시급함

부산보다 이르게 ‘아동전용 보건지소’ 를 설립했던 성북구의 경우 시비 7 억원과 구 예산 6,000만원을 투입해서 274.39m<sup>2</sup> 규모로 교육실, 유희실, 검진실, 상담실, 수유실 등 시설을 갖췄음. 태안은 이와 같은 대규모의 소 규모라도 지역 주민들이 믿고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아동전용 보건 지소를 설립한다면 예산은 성북구보다 크게 줄어 들 수 있음. 일반적인 보건지소의 운영의 경우 사업비와 인건비 등 1개소당 7천만원 지원

- 경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 경남도는 2016년부터 유방암 촬영장치, 디지털 초음파영상진단기, 심전도검사장비, 골밀도측정기 등 12종의 최신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산부인과’ 는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6 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검진횟수도 월 3~5회 운영
  - 부인과 검진에 대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4개 군 지역(의령, 고성, 산청, 함양)을 대상으로 임산부 및 가임비가임여성 등 모든 여성에게 확대 운영하고, 검진비는 무료로 제공

## ■ 장애인

- 서울 동작구 ‘경로·장애인 특수목욕지원사업’
  - 저소득 지체장애인이거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각 가정에서 혹은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이들은 신체적 활동 제약, 경제적 부담, 동행 가족부재, 낙상에 대한 두려움 등 개인 위생관리가 어려움
  - 기존의 이동목욕시설차량 서비스와 같은 것은 있지만 장애인들이나 고령의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

- 장애인 특수목욕차량은 중증장애인(휠체어장애인) 전용 목욕장비(휠체어형 자동욕조, 좌식자동샤워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높임
- 장애인 특수목욕지원사업을 통해서 개인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는 장애인 및 고령의 노인들의 건강증진의 기회로 작용
- 지역사회복지관과 연합한 차량지원
- 사전예약을 통해 서비스 중복을 피하고,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 무료로 특수목욕서비스를 이용
-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목욕서비스를 통해 장애를 억제하는 치료효과와 사회적 대인관계가 단절된 대상자의 관계형성 개선, 더 나아가 사회적 공동체 의식 고취
- 본 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한 동작구의 경우 고정이용자 14명으로 매주 5-6 명이 이용하고 있음
- 태안군도 이원면사무소 직원들이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목욕봉사활동을 한 선행사례가 있음. 이에서 알 수 있듯이 목욕서비스가 장애인이나 초고령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태안의 경우 지리적인 특성상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또한 생활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 개인위생을 위한 목욕이 매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지리적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혹은 소외지역 노인들의 개인위생을 위한 차량을 통한 목욕서비스 지원은 현 시점에서 태안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라고 사료됨.

사랑의 열매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 모니터링 평가(2007)’에 따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두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반정도임. 전담인력을 두었을 경우 주당 최대 투입시간은 1일 6시간 정도라 나타남. 이동목욕차량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연간 약 3천만 원으로 이중 90%가 지자체 지원금. 이러한 맥락에서 태안에서 장애인전문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한다면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다문화가정

- 대전 동구 ‘글로벌 맞춤형 민원서비스 다감이 봉사단’
  - 다문화가정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
  - 다감이 봉사단은 결혼이주자 혼인신고와 귀화에 필요한 번역서비스 및 성·본 창설과 개명 법원 허가신청 지원
  - 국제혼인 신고 시 첨부되는 서류를 번역 대행업체에 의뢰하면 경제적 부담 발생
  - 결혼 이후 귀화를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결혼이주자들이 어려운 법원 행정용어와 복잡한 허가신청서를 작성이 불편하여 귀화 후에도 성·본 창설과 개명허가 신청에 소극적. 한편 이러한 성·분 창설을 대행업체에 의뢰하면 30~60만원으로 경제적 기반이 약한 다문화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이를 위해서 공무원 다감이 통·번역 봉사단 운영 및 법원 허가신청 대행 봉사단 운영
  - 공무원 봉사단의 장점은 다문화 지원사업 정보제공에 용이하고, 필요시 부서 연결이 신속함
  - 공무원 봉사자에 대한 민원인의 높은 높은 신뢰성 형성
  - 공무원 다감이 봉사단을 통해서 결혼이주자의 안정적인 한국살이 조기 정착 기여와 공무원의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관공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
  
- 경북 칠곡군 ‘결혼이주여성 한국식 이름 찾아주기’
  - 지역민으로서 결혼이주 여성의 조기정착을 돕고, 특히 학교에서 자녀들이 엄마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는 현실과 자녀의 올바른 학교생활을 위해 창성창본(創姓創本)이 필요함
  - 하지만 창성창본을 하려면 30~60만원의 비용이 발생. 왜관 라이온스 클럽에서 창성창본에 대한 비용전액을 부담함으로 개인부담을 없앴. 한편 지역 법무사와 연결하여 창성창본 업무대행 적극 협조요청과 창성창본에 필요한 비용 중 실비만 받고 업무대행

## ■ 청소년

- 부천시 ‘청소년카페 무지개’
  - 2014년 오픈한 청소년 카페 무지개는 지역 밀착형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쉽고 소통 그리고 활동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각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카페라는 취지 그대로 청소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PC, 포켓볼, 보드게임 등 준비. 이외에도 북카페, 상담실, 영화 감상실 등의 문화공간 제공
  - 한편 보드게임 대회, 일일 음악카페, 동아리 발표회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 공간으로 활용
  - 청소년카페는 청소년이 혼자 또는 함께 쉴 수 있는 곳,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 관심이 모여져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곳, 자기성장을 위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 지역사회의 따뜻한 배려를 경험하는 곳을 지향. 부천시 이외에도 천안의 ‘카친 1318’, 서울시 ‘휴’, 군포시 ‘Teen터’ 등 이미 많은 지역에서 도입
  - 태안의 청소년들이 손꼽는 문제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임
  
- 성북구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
  - 지역에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를 둬으로써 아동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상담센터, 교육청의 돌봄기능, 교육복지센터 업무를 종합연계하는 서비스
  - 학교폭력, 가정폭력, 유아문제 등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통합적 아동·청소년 안정시스템 구축

태안은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므로 정보제공과 이들의 필요를 연계기관과 이어주는 것이 필요함. 이에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는 지역의 청소년 관련 자원을 찾고,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도입을 고려 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임.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사회복지사 인건비에 비례해서 책정할 수 있음

- 충남 서천군 ‘여우네 도서관’

- 여우네 도서관은 2008년 11월 15일에 개관하여 아동 청소년 일반용 도서자료를 비치하고 다양한 교육문화활동을 하는 마을도서관
- 여우네 도서관은 농촌지역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안한 교육문화공간이자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이기도 하며 엄마와 아기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
- 활동프로그램으로는 도서대출, 책 읽어주기, 글쓰기, 식농교육, 북스타트운동,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작은도서관네트워크 등

### ■ 사회복지 전문인력 관리

- 평택시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 기존 직원이 육아 휴직할 경우 결원을 100% 충원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따로 지급
-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힐링 워크숍을 정례화
- 사회복지 업무담당자들의 심리적 부담해소를 위해 시장이 주재하는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담당 직원과의 간담회
-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 울산시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울산시는 한해 동안 총 100명의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 읍·면·동 직원 근무가점, 장기근속자 우대, 성과 상여금 지급 평가 시 가점, 전보 희망 부서 우선 배치, 장기 포상 우선 추천 등 다양한 ‘인사 우대 시책’을 적극 추진
- 구군의 사회복지 관련부서 과장(5급)복수직 확대 및 읍·면·동 근무자 가점 부여
- 팀장(6급) 직위에 대한 사회복지 직렬 우선 배치를 유도하고 장기근속자 우대, 포상
- 사회복지공무원 힐링 워크숍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인력 충원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태안군의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함. 실제로 태안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한 열정에 비해서 처우가 행정직과 비교했을 때 좋다고 할 수 없음. 특히 사회복지 직렬이 인사상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하며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이 중요함

- 경남 산청군 ‘사회복지 공무원 멘토링’
  - 신규 공무원인 상담자와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인 조언자가 결연해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자세와 공직생활에 대한 이해 등 업무 처리요령 전수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 팀별로 월 2회 이상 온라인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사회복지 업무처리 방법과 공직생활 노하우 전수는 물론,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의 고충상담
- 충북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옥천군은 김영만 군수의 공약사업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 진행
  - 군은 지역 17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20여 명에게 1인당 상·하반기 나누어 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 군은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예산을 편성,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

##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시행 2015.03.05.]

( 제정) 2015.03.05 조례 제24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란 국가 또는 군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의 종사자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종사자는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4.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서 군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제4조(지급기준) 옥천군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처우개선비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옥천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3. 5.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순창군 협의체 연합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먼 자체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
  - 지역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상점에는 착한가게 입간판을 설치해주고 있음
  - 협의체는 지역 식당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반찬을 지원해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매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 읍면 복지허브화를 추진
  
- 이천시 ‘행복한 동행’
  - 행복한 동행은 지역사회 복지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해 이천시에서 2013년 9월부터 시작한 기부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 지역의 사업장이 기부한 재능 및 물품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복지욕구에 맞춰 연계하는 체감도 높은 민관협력 맞춤형 복지
  - 1인 1나눔 계좌 갖기 사업은 시민과 공직자 2,273명이 참여해 7,000여 만원 적립
  
- 광주 광산구 ‘복지전달체계 지원’
  - 광산구는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 조직을 개편. 구 권역별로 특색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전략동계 운영
  - 맞춤형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목표로 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화
  - 사회복지직 공직자 충원 및 근무여건 개선
  - 주민 누구든지 쉽게, 한눈에, 어디서나 확인하고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안내서 복지매니저 길라잡이 발간. 이 안내서에는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195개 복지사업은 물론이고, 그 수혜자격과 사회복지시설 현황도 포함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눔문화공동체 투게더광산 운영. 투게더광산은 순수 민간 주도 법인으로 원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의 기구였는데, 재단화를 통해서 현재는 독자적으로 활동해 복지자원의 발굴과 배분에 큰 성과를 이룸

## ■ 의료서비스

- 강원 화천군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 보건의료원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의 고용’
  - 강원 화천군은 지역 영유아와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화천군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를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작됨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은 접경지역 특성 상 수년 간 민간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개원되지 않아 공중보건의만으로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결정함
  - 공중보건의는 3년마다 교체되지만 업무대행 전문의는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해 보다 연속성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화천군보건의료원에 평소보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몰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춘천 등 외지로 아이들을 차에 태워 나가는 것보다 화천에서 진료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태안군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인 ‘명소아청소년과’가 있지만 영유아와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부족함. 이번 FGI 연구에서 지적된 태안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중에서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의료시설 부족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한 보건의료원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의 고용을 한 화천의 사례가 시사하는점이 큼

##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관악구 보라매동 ‘싱글복지플래너 사업’
  - 1인 가구에 대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공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 1인 가구 중 65세 미만 가구 복지플래너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따라 싱글복지플래너 사업을 추진함
  - 싱글복지플래너 사업은 전입한 1인 단독 세대주가구 중 복지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1인 가구 외에 복지 상담을 희망하는 가구도 포함됨
  - 1인 단독 세대주가구가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복지 상담 수락 여부 안내 문구에 ‘예’ 라고 표시됨
  - 복지플래너 총괄 담당 우리동네주무관이 전입자 중 복지 상담 희망자를 매일 파악해 담당 통 복지플래너에게 연결. 전화로 먼저 방문 의사를 타진하고 동행 인력과 방문해 상담을 진행. 필요하면 방문간호사와 동행함

- 상담 후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상담 및 욕구에 맞는 자원을 제공. 필요하면 발굴된 가구 중 사례관리를 실시함
- 위기 상황에 놓여도 쉽게 드러나지 않은 1인 가구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예방적 복지 정책을 실현이 기대됨

### ■ 해외사례: 프랑스 사례중심

- ‘동반과 휴식 플랫폼(Les plateformes d’accompagnement et de répit)’<sup>5)</sup>
  - 동반과 휴식 플랫폼은 독립성을 잃은 노인들(치매 혹은 유사한 질환)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돕기 위한 사회지원서비스임
  - 동반과 휴식 플랫폼은 프랑스 정부가 일반 시민, 환자, 환자가족 및 전문가들 누구나 참여하는 오픈테이터 방식의 연구를 위한 조치인 ‘DEOMA(un dispositif d’ enquête d’ opinion sur la maladie d’ Alzheimer)’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매 혹은 치매와 유사한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돌보는 사회적 서비스임
  - 동반과 휴식 플랫폼은 재가노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휴식(soutien et répit)’ 을 제공함
  -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집에서 돌보는 이들 또한 고령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겪게 되는 고립이나 혹은 육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로 이들에 대한 치매에 대한 교육,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체인력 제공 서비스 등이 해당. 특히 휴식의 경우 반나절(demi-journée) 혹은 몇 일 정도 제공됨
  - 집 주변에 도움 혹은 필요한 약국과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동반과 휴식 플랫폼은 심리학자와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함
  -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우 보호자의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 이러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지역 보건소나(l’ Agence régionale de santé (ARS), 지역의회(le Conseil départemental)에 신청하면 됨
  - 이 서비스는 맞춤형으로 개인에게 제공이 되기도 하지만 그룹상담 혹은 치료도 진행됨
  -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기준 프랑스의 지방에 57개의 플랫폼이 형성.<sup>6)</sup> 동반과 휴식 플랫폼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됨

5) <http://www.pour-les-personnes-agees.gouv.fr/qui-sadresser/points-dinformation-de-proximite/les-plateformes-daccompagnement-et-de-repit>, 2017년 11월 23일 검색

6) [http://solidarites-sante.gouv.fr/IMG/pdf/bilan\\_enquete\\_plateforme\\_de\\_repit.pdf](http://solidarites-sante.gouv.fr/IMG/pdf/bilan_enquete_plateforme_de_repit.pdf) 2017년 11월 22일 검색

- 태안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율이 크고, 가정에서 노인돌봄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음. 특히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중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동반과 휴식 플랫폼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큼
- ‘예술 무단점거(Squat Artistique)’
  - 프랑스에서는 예술가의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특히 예술창작 지원측면에서 작업공간을 제공. 공공작업공간을 배당 받기 위해서 예술가는 예술성, 소득수준, 작업형태, 예술가의 가족의 수 등이 고려됨
  - 최근에는 ‘예술 무단점거(Squat Artistique)’로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나 거주권이 없는 예술가들이 빈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창작공간과 대안적 예술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운동이 프랑스에서 확산. 이러한 예술 무단점거의 형태에 대해서 공공기관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점차 전국적인 활동으로 확대. 특히 파리에 있는 ‘공동의 작업장(Atelier en Commun)’<sup>7)</sup>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창조를 위한 공간으로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 운영방식에 따라서 운영. 이 공간의 특이한 점은 이곳을 이용하고 싶은 이들은 사용료를 내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를 이용해서 창작작업을 할 수 있음. 이 공간은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 열리고, 주말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함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 혹은 버려진 집들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음. 태안도 예외가 아님. 특히 관광 이외에 특별한 지역산업을 촉진 시킬 동력이 없는 태안에게 프랑스의 예술 무단점거는 재역재생 혹은 지역개발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사례가 될 수 있음
  - 한편 청소년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의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사료 됨
- ‘재가 문화서비스(Services culturels à domicile),<sup>8)</sup>
  - ‘CASCAD(재가문화서비스와 보조 조직)’은 문화접근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미세적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하고자 만들어진 단체. 1999년에서 2002년 사이 프랑스 노동부의 연구사업으로 시작해서 2003년부터 파리시가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파리의 낙후지역인 20구에 시행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7) <http://le.cent.free.fr/html/3-1.html>

8) [www.nantes.fr](http://www.nantes.fr): Gérontologie et société, 2008/3 n° 126 | pages 205 à 215

- CASCAD는 장애인,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문화나 여가의 접근 기회를 주는데 목적을 둬.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10여명 모아서 아틀리에를 운영하기도 하고, 문화활동을 위한 외출을 하고자 할 때는 이에 맞는 정보 제공과 동행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 그리고 책, CD, DVD 등을 방문대여함
- 재가 문화서비스는 앞에서 언급한 ‘예술 무단점거’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함
- 낭트(Nantes)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정책: ‘오 메뉴(O’ Menu)’<sup>9)</sup>
  - ‘오 메뉴(O’ Menu)’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노인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식당들을 추천하고, 노인들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차등된 요금을 적용 받는데 1.5유로부터 10유로까지 구분. 현재 낭트 시내에 6곳의 거점 식당을 중심으로 19곳의 식당들이 참여함
  - 참여하는 식당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개방. 주중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식당에서 식사 가능. 그리고 낭트시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2명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쿠폰을 신청 시 우편으로 발송. 처음 가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식사 날짜의 3일 전에 신청하면 한 끼를 무료로 체험 가능함
  - 태안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식사바우처로 대처를 할 수 있음. 본 프로그램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노인 고립의 문제를 함께 대응 할 수 있음
- ‘Villevêque의 다 세대 마을(Le village des générations de Villevêque)’
  - 1990년대 Villevêque 마을에 은퇴자들을 위한 집(maison de retraite)을 재건축해야 함과 동시에 어린이 탁아소(crech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례임
  - 지역 전문가들은 이 두 단체를 하나의 지붕 아래에 둬. 그리고 ‘다세대 마을(Village des generations)’을 2004년 2월에 개방. Clothilde Secher는 몇 년 전부터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나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 이와 같은 노력들은 세대 간 장벽을 없앴.
  - 태안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다른 사회서비스보다 앞섰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만이 아니라 한 공간에 태안에서 부족한 공공 유아서비스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다 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가능함
  - 특히 노인 복지시설과 어린이 돌봄 시설이 함께 있을 경우 노인들의 소외문제와 어린이 돌봄에 대한 인력 문제를 함께 해결이 가능. 노인인력을 상시

9) <http://www.nantes.fr/home/a-votre-service/fiches-pratiques/solidarites-aides-financieres/beneficier-de-loffre-de-restaura.html>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안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조인력으로 활용 가능. 어린이 교사의 교육, 휴가 혹은 출산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가능. 이를 위해서 평상시에 노인인력의 활용을 통한 교육이 필요함

### 3. 향후 태안군 지역복지정책방향

#### ■ 정책결정자의 의지

-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과의 소통내용을 통해 태안의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참고하는 것이 필요
- 향후 읍면의 복지 인력을 충원하는데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사회복지예산

- 태안군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20%까지 상향 조정

#### ■ 사회복지 인프라

-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행복경로당 확충
  - 노인복지분야에서는 태안군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전무하나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확충해야 함
-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독려를 위한 공공근로 참여 확대
  - 장애인분야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수요는 많으나 아직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직업재활시설을 더욱 확대해야 함. 기존 태안군 도서관에 점자도서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상향 조정
  - 보육분야에서는 군민들이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므로 국립 어린이집을 1개소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여성들을 위한 육아돌봄 공공서비스 확대
- 태안 보건의료원 현대화 작업에 대한 홍보필요

#### ■ 공무원의 인력과 전문성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인 ‘찾아가는 서비스’ 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읍면의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함
-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간의 형평성 제고(승진기회 등)

## ■ 복지 거버넌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
  - 협의체 사무국장 및 협의체 구성원의 주인의식 함양 및 역량강화
  - 협의체 중심의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 주도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군 차원의 협의체 구성원 대상 교육
- 복지분야 민관협력 사업의 적극적 추진



## 참고 문헌

- 김용현 2014.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 남궁근 1998. 비교정책연구(방법,이론,적용). 법문사.
-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07. 〈U-쾌한 남양주 운영백서〉.
- 박세경 외. 2013.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홍원 외. 2015.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상현 2007. “지방정부 지역복지정책의 평가 연구” . 〈한국자치행정학회보〉 제21권 제2호, 169~186.



# 참여 연구진

---

## □ 연구책임

김용현 책임연구원

총괄

## □ 내부 연구진

신혜지 연구원

임다정 연구원

## □ 외부 연구진

손동기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개발학과)

